

여성어업인포럼 국회 정책 토론회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

2022년 12월 15일(목)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안 병 길

| 주관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 후원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

2022년 12월 15일(목)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안 병 길

| 주관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 후원 |  해양수산부

정책 토론회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0:00 ~ 10:20	[개회식] • 국민의례 • 개회사 • 축사 • 인사말 • 단체 사진 촬영
10:20 ~ 10:50	[여특위 소개] 여성어업인 소분과 김영란 여특위 위원장 [주제발표] ①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와 기후변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실태 및 정책제언 김종천 박사(부경대) ② 어업·어촌현장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삶 임우연 박사(충남여성가족연구원·여특위 위원)
10:50 ~ 11:45	[토 론] 좌 장 : 최성애 박사(경남연구원) 이순미 박사(KREI) 엄선희 박사(KMI) 이종호 과장(해수부 소득복지과) 이영순 분회장(한여련 부산시분회) 김영화 분회장(한여련 강릉시분회) 주현주 기자(농어민신문)
11:45 ~ 11:55	[추가토론 및 질의응답]
11:55 ~ 12:00	[폐 회]



개 회 사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 병 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
으로 어업이 남성 중심의 산업일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실제 어가 인구의 50.3%는 여성어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부산 서·동구만 하더라도 어선업, 양식업, 맨손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여성어업인들을 현장에서 자주 뵈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분한 인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여성 어업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대한민국 수산업 전체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전문성 있는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고, 여성어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
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0월, 제1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뒤늦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여성 어업인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눠질 전문가분들의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어업인을
위한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론회 이후에도 대한민국
어업발전을 위해 여성어업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축 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임 준 택

존경하는 전국 여성어업인 여러분!
수협중앙회장 임준택입니다.

어촌과 수산 발전에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촌과 수산 현장에서는 여성들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 어업인구 가운데 여성비율이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들은 남성들의 보조적어업인으로 인식되어 어업종사자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어업인이 가진 힘, 열정, 긍정적인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도록 저희 수협이 돕겠습니다.

또한, 어촌인구의 고령화,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등은 곧 눈앞에 닥칠 어촌의 위기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어업인이 어촌과 수산현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주체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과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국 여성어업인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인사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

반갑습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평입니다.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회 안병길 의원님과 정책토론회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안창희 회장님과 후원해주신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발표자, 토론자분들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성어업인 분들과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어촌은 지금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19는 고령화로 인한 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생산효율성 저하 및 재해 위험증가 등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우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가 인구의 과반수 이상인 여성어업인들의 지역별·업종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이 걱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현장의 많은 부분이 여성어업인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될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와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등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있는 정책들이 논의되어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어촌·어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농특위는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현장의 의견을 앞으로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어촌·어업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환영사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안창희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안창희입니다.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여성어업인포럼 국회 정책 토론회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시고,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안병길 의원님께 전국 여성어업인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 해 동안 여성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님,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성어업인들은 한 가정의 살림꾼이자 어촌 현장의 일꾼으로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촌사회의 조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업은 노령화와 인력난으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수산업의 위기에서 여성어업인은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여성어업인의 날’은 여성어업인 육성체계를 갖추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업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성어업인의 전문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어업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전국 여성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학계, 민간 전문가, 관련 공무원 그리고 여성어업인이 함께 논의하고 제시하는 의견을 잘 경청하여, 여성어업인의 위상 제고와 권익 신장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은 한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CONTENTS

「여성어업인이 만드는 어촌·어업의 미래」 국회 토론회

개회식 • 개회사

축사 • 축사
• 인사말

주제발표	● 여특위 여성어업인 소분과 소개 : 김영란 여특위 위원장 ●
발제1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와 기후변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실태 및 정책제언 1 김종천 박사 (부경대)
발제2	어업·어촌현장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삶 23 임우연 박사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여특위 위원)

토론	● 좌장 : 최성애 박사(경남연구원) ●
	▶ 여성어업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 정책과 33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 38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2~'26년)」 (요약) 40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 여성어업인 맞춤형 지원 필요성 44 이영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산시 분회장)
	▶ 여성어업인의 현실과 발전 방향 46 김영화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강릉시 분회장)
	▶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 디테일에 달렸다 48 주현주 (한국농어민신문 기자)

붙임자료	2022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결과 5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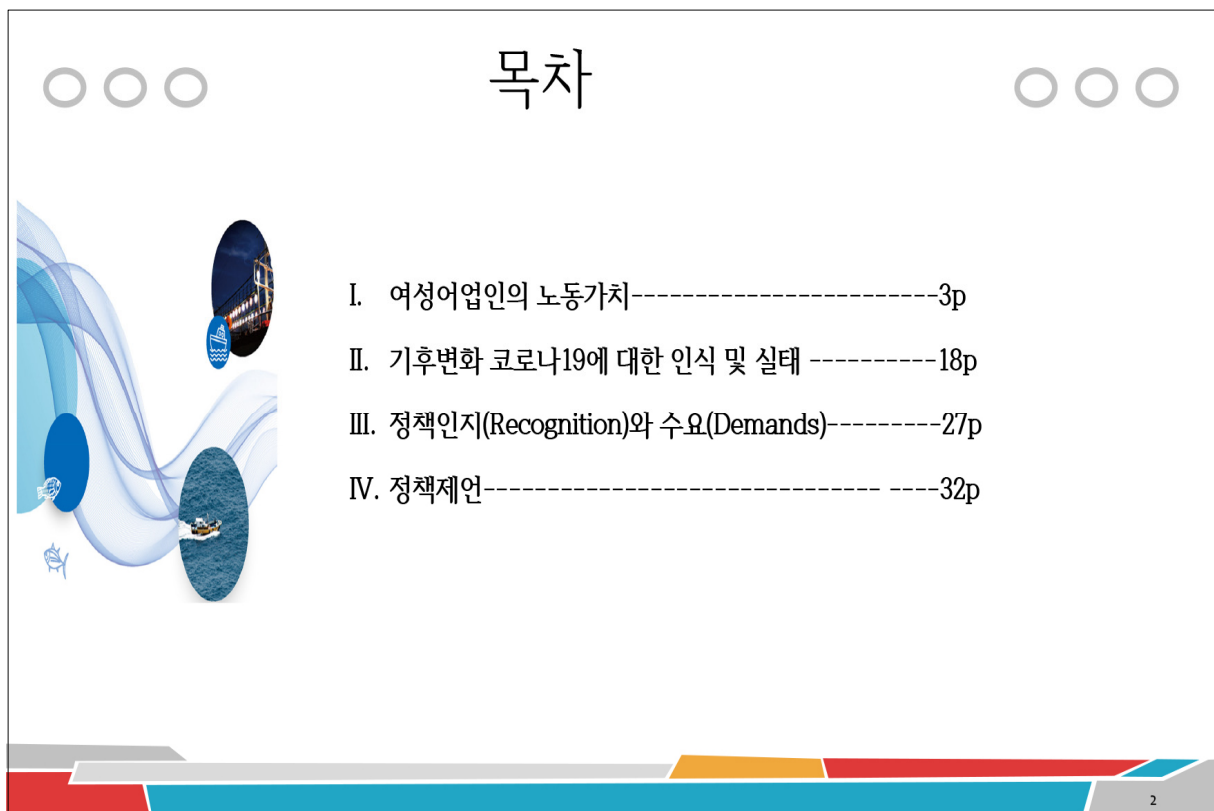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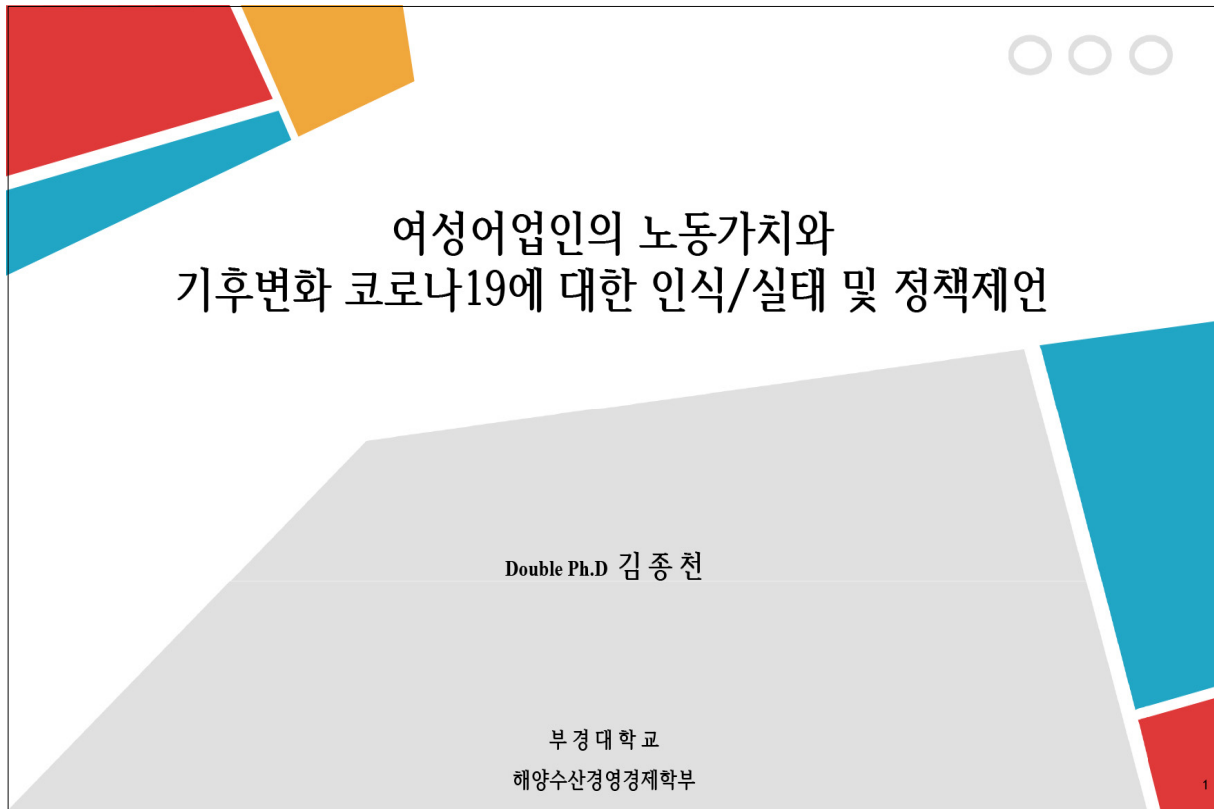
「여성어업인이 만드는 어촌·어업의 미래」국회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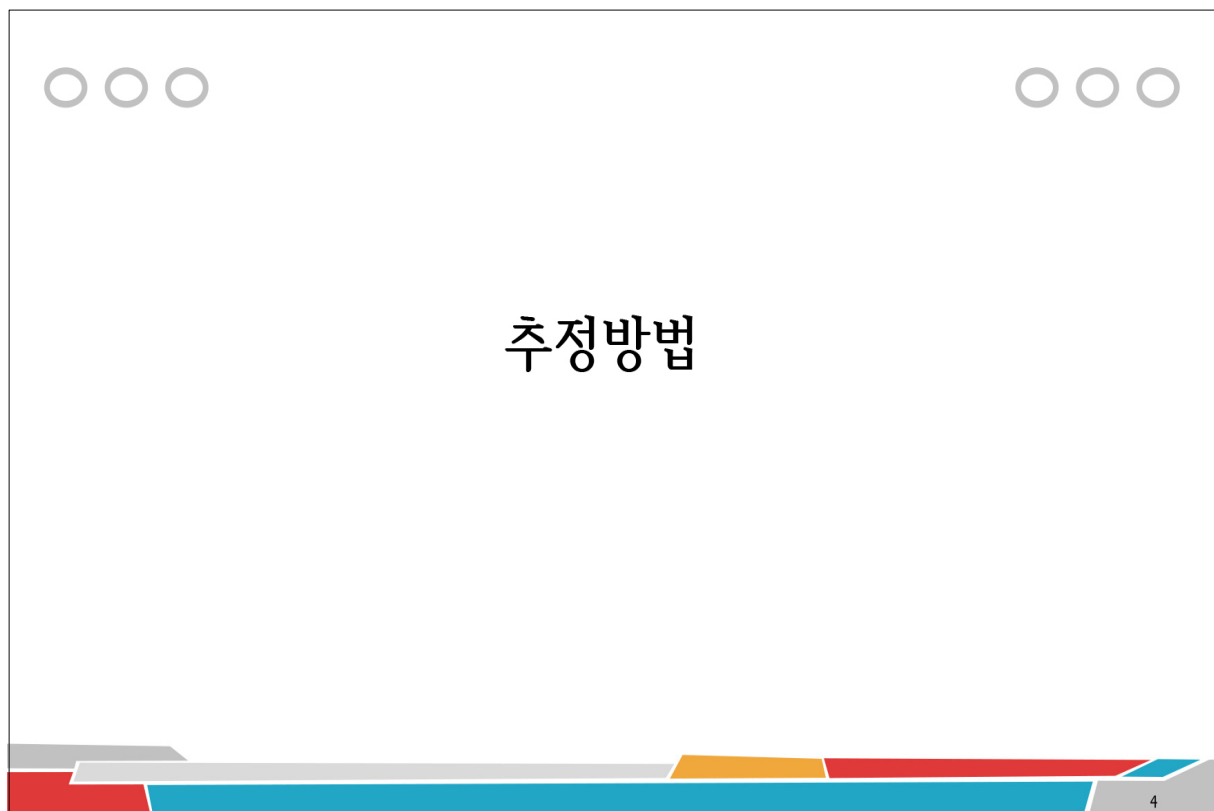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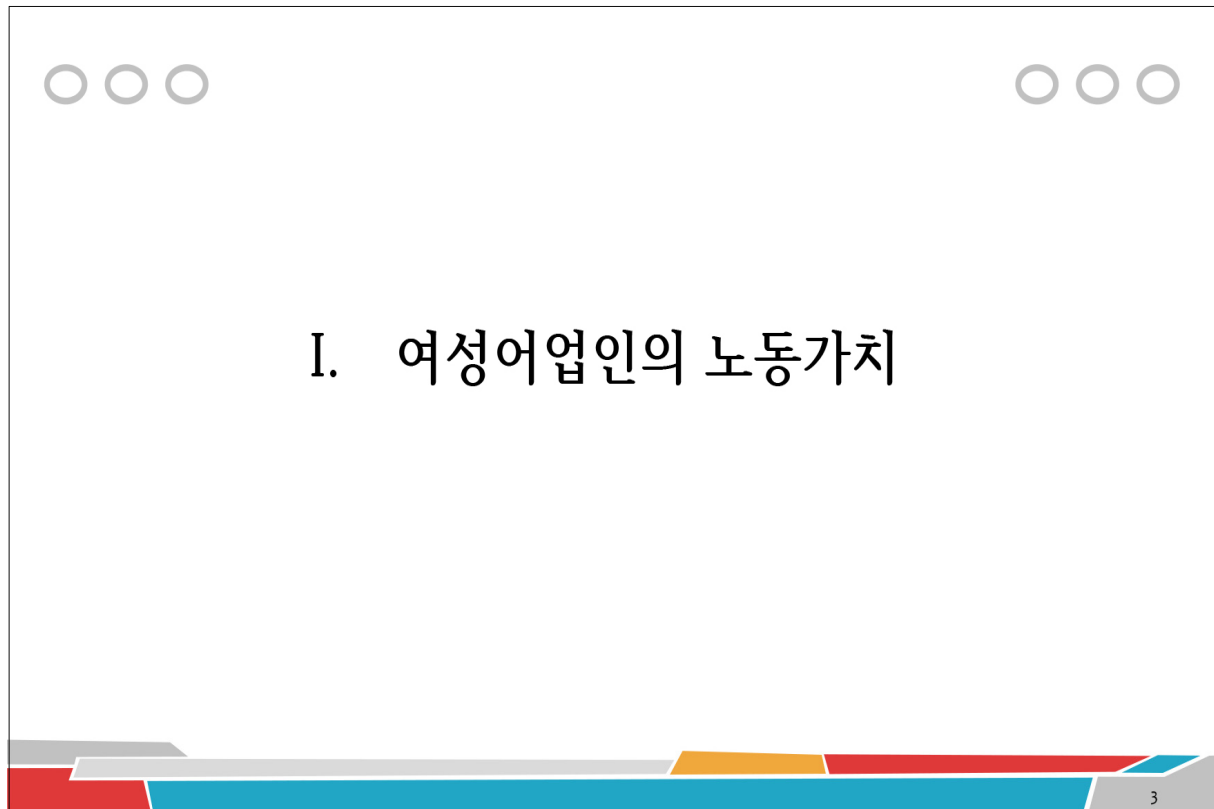
발제 1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와 기후변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실태 및 정책제언

김 종 천 박사
부경대학교









1. 총합적 대체비용법



$$WF_v = (T_h \times W_h) + (T_f \times W_f)$$

T_h : 가사노동시간, T_f : 어업노동시간, W_h : 가정부 시간당 임금, W_f : 어업 시간당 임금

- o 가정부 시간당 임금 : 가사도우미 정보 사이트 miso.kr, 업계 최대 공시 시급 14,000원 적용
- o 어업 시간당 임금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9 기준, 통계표명 :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월정액급여/월근로시간, 17,872원 적용

5



2. 기회비용법



$$WF_v = (T_h + T_f) \times W_f$$

T_h : 가사노동시간, T_f : 어업노동시간, W_f : 어업 시간당 임금

- o 어업 시간당 임금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9 기준, 통계표명 :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월정액급여/월근로시간, 17,872원 적용

6



3. 소득현시법 + 총합대체법



어업노동가치 = 연간소득 X 어업소득 비중

어업노동가치 = 연간소득 X 본인소득 비중

가사노동가치 = 성어기 가사노동가치 X 2

= (25일 기준 가사노동가치 + 30일 기준 가사노동가치)의 평균 X 2

= {(25일 기준 가사노동시간 X 가정부 시간당 임금)

+ (30일 기준 가사 노동시간 X 가정부 시간당 임금)} X 2

= {(1일 가사시간 X 25일 기준 성어기 일수 X 가정부 시간당 임금)

+ (1일 가사시간 X 30일 기준 성어기 일수 X 가정부 시간당 임금)의 평균

X 2

7



가사노동가치

8



4. 시도별 가사노동가치



시도별 가사노동가치 = 시도별 설문조사 유효수 X 시도별 가사노동가치
표본평균

<표 1> 시도별 여성 어업인 가사노동가치 추정금액

구분	가사노동가치(원)	구분	가사노동가치(원)
합계	22,043,560,000	-	-
강원	2,856,700,000	인천	658,350,000
경남	5,694,150,000	전남	3,046,120,000
경북	1,349,040,000	전북	1,754,060,000
부산	846,230,000	제주	2,240,700,000
울산	415,030,000	충남	3,183,180,000



5. 업종별 가사노동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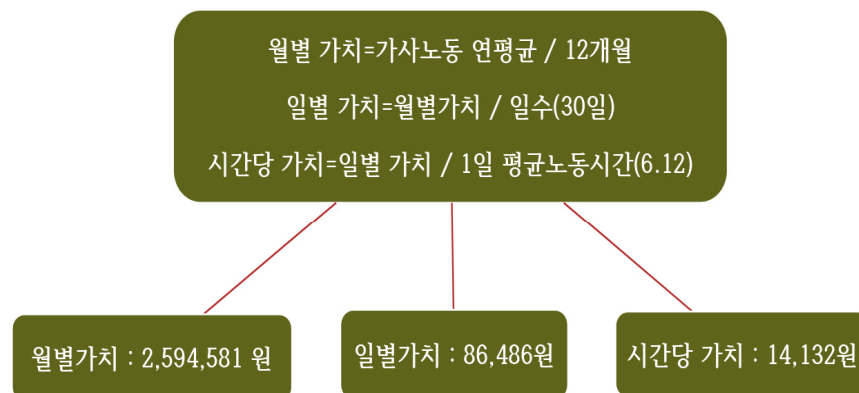


업종별 가사노동가치 = 업종별 설문조사 유효수 X 업종별 가사노동가치
표본평균

<표 3> 업종별 여성 어업인 가사노동가치 추정금액

구분	가사노동가치(원)
합계	18,366,810,000
어선어업	11,284,350,000
양식어업	3,732,190,000
맨손어업	1,543,850,000
나잡어업	1,806,420,000

6. 가사노동가치를 이용한 월별/일별/시간당 가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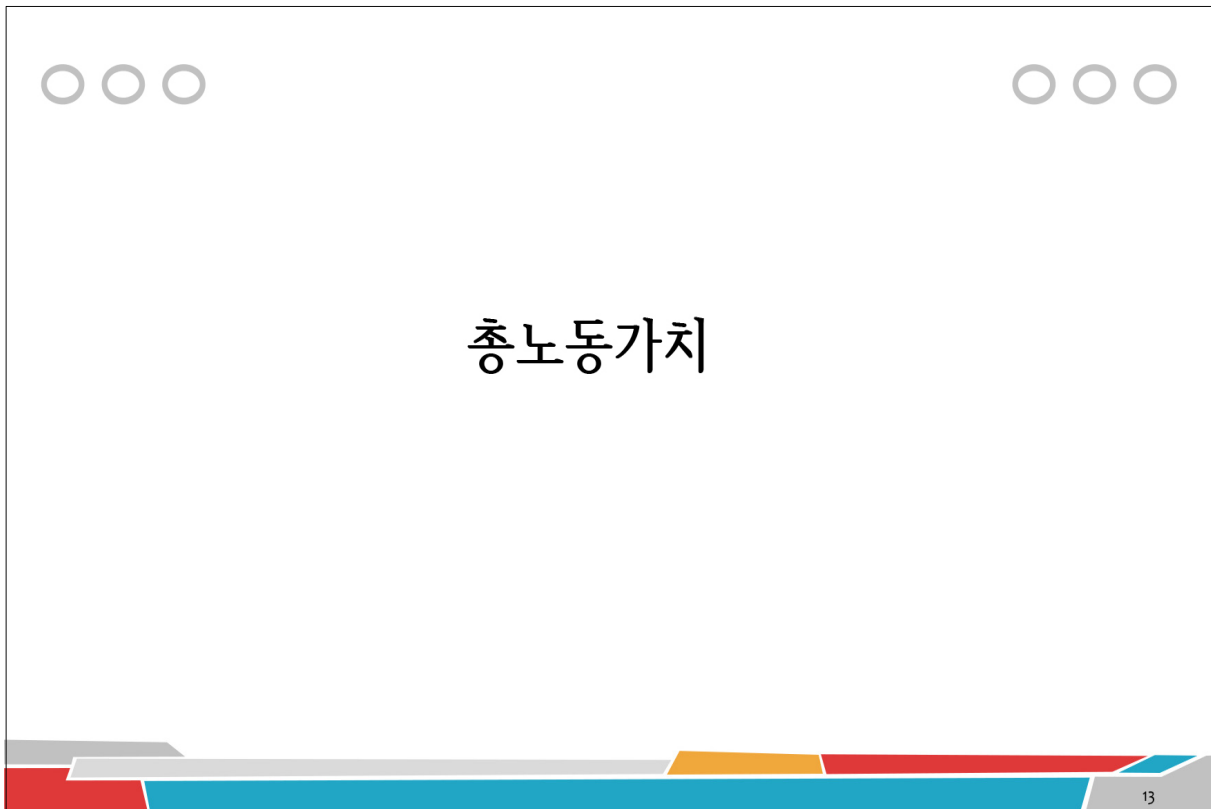
7. 시뮬레이션 가사노동 총가치

<표 2> 여성 어업인 가사노동 총가치 추정금액

구분	기준수(명)	총가치(원)
여성어업인	50,000	1,556,748,587,571
여성어업경영주	10,000	311,349,717,514
한여련회원	8,338	259,603,394,463

주 : 여성어업인 수와 여성어업인 경영주 수는 농림어업조사(2016년 기준)를 통해 추산한 기준임

12



어업소득 기준

8. 시도별 총노동가치

시도별 총노동가치 = 시도별 설문조사 유효수 X 시도별 총노동가치 표본평균

<표 4> 시도별 여성 어업인 가사노동가치 추정금액

구분	총노동가치(원)	구분	총노동가치(원)
합계	73,593,985,000	-	-
강원	11,027,050,000	인천	1,339,200,000
경남	14,566,150,000	전남	14,023,065,000
경북	4,105,540,000	전북	4,258,410,000
부산	2,677,480,000	제주	3,676,750,000
울산	615,295,000	충남	17,305,045,000

어업소득 기준

9. 업종별 노동 총가치

업종별 총노동가치 = 업종별 설문조사 유효수 X 업종별 총노동가치 표본평균

<표 6> 업종별 여성 어업인 노동 총가치 추정금액

구분	가사노동가치(원)
합계	65,662,345,000
어선어업	42,941,455,000
양식어업	17,283,000,000
맨손어업	2,431,205,000
나잡어업	3,006,685,000

15

어업소득 기준

10. 총노동가치를 이용한 월별/일별/시간당 가치

월별 가치=총노동가치 연평균 / 12개월

일별 가치=월별 가치 / 일수(30일)

시간당 가치=일별 가치 / 1일 평균노동시간(6.79)

월별가치 : 7,318,415 원

일별가치 : 243,947원

시간당 가치 : 35,927원

16

어업소득 기준



11. 시뮬레이션 노동 총가치



<표 5> 여성 어업인 노동 총가치 추정금액

구분	기준수(명)	총가치(원)
여성어업인	50,000	4,391,049,224,344
여성어업경영주	10,000	878,209,844,869
한여련회원	8,338	732,251,368,652

주 : 여성어업인 수와 여성어업인 경영주 수는 농림어업조사(2016년 기준)를 통해 추산한 기준임



17



II. 기후변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실태 및 정책제언



18



1.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인식 비교(1)



기후변화 인식

기후변화 인지 정도
- 안다 93.2% - 어선/나잡어업 응답률 가장 높음 11.9% - 나잡어업 고령이 많아 응답률 낮음

기후변화 인지 경로
- TV, 라디오 75.5%, 수협 22.2%, 유튜브 등 20.6%, 전문지가 최저 -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경로인 공중파 선호, 정보 풍부하고 재미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로 선호

기후변화 수산업 영향
- 평균평점 2.3, 부정적 - 어선/양식, 나잡 평점 1점대 매우 부정적

기후변화 세부영역별 영향
- 소득, 수산자원, 어업비용, 어장환경, 생활환경, 수산물소비 모두 - 평균평점 2점대로 부정적

기후변화 홍보 정도
‘매우 미흡’, ‘미흡’ 응답률이 61.7% 개선 필요



19



기후변화 대응책 인지 정도
- 안다 66.9%, 모른다 33.1% - 안다가장 높은 응답률 : 어선어업 12.7% - 모른다가장 높은 응답률 : 어선어업 21.3%

기후변화 대응책 인지 경로
- TV, 라디오 48.0%, 수협 23%, 유튜브 등 12.2%, 기타가 최저 - 기후변화 인지 경로와 유사한 비중이나 공중파 비중은 다소 낮음

기후변화 모르는 이유
- 정부의 홍보 부족 47.4%, - 해수부 및 지자체 전문성 부족 15.7%, - 현장 공무원 인식 부족 13.2% - 총 76.3% 정부인식 전문성 부족 지적

향후 관심 의향
- 이제부터 관심가질 것임 47.1% - 적극적 알아볼 것 37.7% 총 84.8%가 향후 행동 의향 긍정 - 별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음 응답률최고 : 어선어업



20



1.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인식 비교(2)



☞코로나19 인식

코로나19 감염 경험 • 있음 66.4% • 있음 최고 응답률 : 어선어업 24.2% • 없음 최고 응답률 : 어선어업 11.0%	코로나19 수산업 영향 • 매우 부정적 34.4% • 부정적 44.4% • 평균평점 2.1, 부정적	세부영역별 영향 • 소득, 출어비, 인건비, 유통비, 생활비, 수산물 소비, 판매/마케팅 • 평균평점 모두 2점대 부정적
코로나19 대응 적절성 • 매우 부정적 6.9% • 부정적 12.9% • 평균평점 2.5, 보통	코로나19 유사사태 반복전망 • 매우 부정적 3.5% • 부정적 8.6% • 평균평점 3.0, 보통	코로나19 유사사태 반복시 대응예상 • 매우 부정적 4.4% • 부정적 10.3% • 평균평점 2.7점, 보통

21



2. 기후변화 변화 및 코로나19 변화 실태 비교(1)



☞기후변화 실태 : 본인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변화

소득 • 매우 부정적 11.7% • 부정적 14.1% • 평균평점 2.1점, 부정적	어획량 • 매우 부정적 11.2% • 부정적 13.7% • 평균평점 2.1점, 부정적	어업일수 • 매우 부정적 9.8% • 부정적 12.5% • 평균평점 2.2점, 부정적
작업시간 • 매우 부정적 9.0% • 부정적 10.8% • 평균평점 2.3점, 부정적	판매/마케팅 • 매우 부정적 11.4% • 부정적 11.4% • 평균평점 2.2점, 부정적	

22

2. 기후변화 변화 및 코로나19 변화 실태 비교(2)

기후변화 실태 : 5년전 대비 발생한 변화

어장환경	조업구역	어종
- 매우 부정적 10.8% - 부정적 14.2% - 평균평점 2.1점, 부정적	- 매우 부정적 10.7% - 부정적 13.7% - 평균평점 2.2점, 부정적	- 매우 부정적 10.8% - 부정적 14.2% - 평균평점 2.1점, 부정적

23

2. 기후변화 변화 및 코로나19 변화 실태 비교(3)

코로나19변화 실태 : 코로나19로 인한 재무 상태 변화

소득변화	신용상태	대출이자 상황 상태
- 감소 97.8%, 증가 2.2% - 감소 최고 응답률 : 어선어업 35.4% - 증가 응답률 업종 평균 0.2% 수준	- 불량 38.8%, 우량 61.2% - 불량 최고 응답률 : 어선어업 13.4% - 우량 응답률 : 어선어업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평균 4.1% 수준	'문제없음' 45.2%, '좋지 않은 편임' 33.4%, '매우 좋지 않음' 10.9% 순, - 전체 약 44.3% 정도가 대출이자 상황 상태가 좋지 못함
대출목적	소득 중 대출이자 비중	현재 보유 자산
- 대출목적 응답률 : 사업(어업 등) 57%, 생활비 충당 27.1% - 업종별 대출목적 응답률 : 어선어업 사업 20.6%, 어선어업 생활비 충당 12.0%	- 대출이자 비중 응답률 최고 : 20% 미만 47.8% - 업종별 대출이자 비중 응답률 : 20% 미만 어선어업 20.6%, 35% 이상 어선어업 3.1%	- 자산없음 : 어선 35.5%, 어선/맨손 22.6%, 맨손어업 16.1% - 어선/양식어업권 : 어선/38.5%, 양식 19.3%, 어선/맨손어업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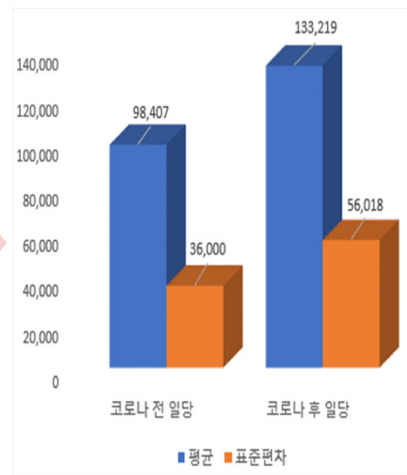
24

2. 기후변화 변화 및 코로나19 변화 실태 비교(5)

☞코로나19변화 실태 : 코로나19 전·후 일당 및 시급 변화

코로나 전·후 일당 평균비교

- 코로나 전·후 일당 평균 차이 : 34,812원
- 코로나 후 인력 수급의 곤란으로 차이만큼 인건비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
- 부호검정과 Wilcoxon 검정 결과 코로나 후 일당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즉 인건비가 상승되었다는 것임. 그 만큼 여성 어업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코로나19 전·후 일당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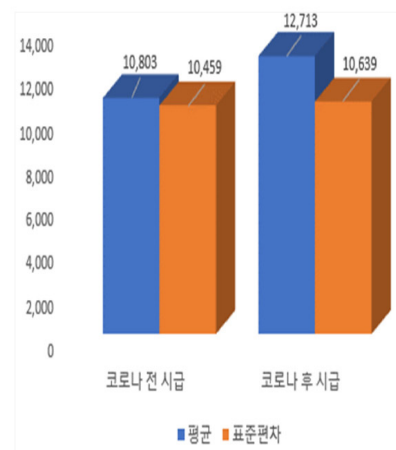
25

2. 기후변화 변화 및 코로나19 변화 실태 비교(6)

☞코로나19변화 실태 : 코로나19 전·후 일당 및 시급 변화

코로나 전·후 시급 평균비교

- 코로나 전·후 시급 평균 차이 : 1,910원
- 코로나 후 인력 수급의 곤란으로 차이만큼 인건비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
- 부호검정과 Wilcoxon 검정 결과 코로나 후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즉 인건비가 상승되었다는 것임. 그 만큼 여성 어업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코로나19 전·후 시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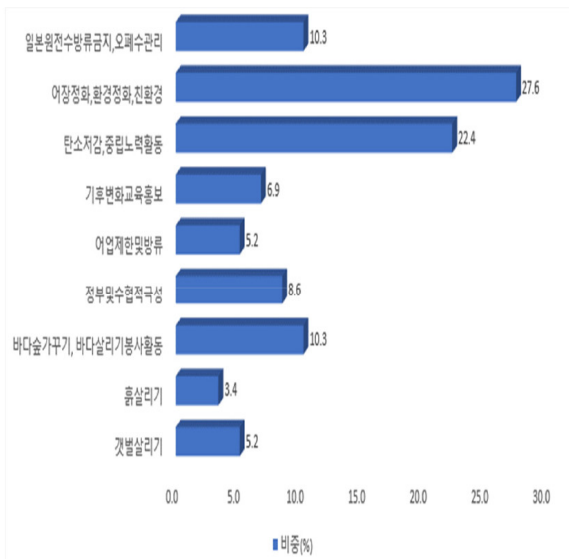
26

III. 정책인지(Recognition)와 수요(Demands)

27

1. 정책인지(Recognition)

- 여성어업인이 알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 텍스트 마이닝
- 표본으로부터 필터링 전 총 58개의 중복 응답이 나왔음
- 필터링 후 총 9개의 중복 응답범주로 계급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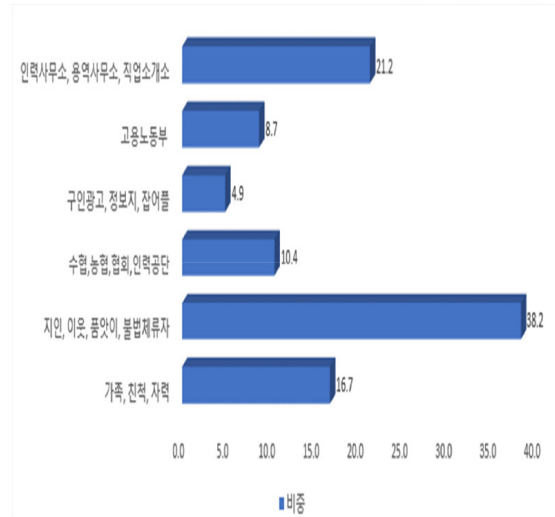


[그림] 여성어업인이 알고 있는 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책 text mining & wordclouding

28

여성어업인의 인력 수급 방식 텍스트 마이닝

- 표본으로부터 필터링 전 총 288개의 중복 응답이 나왔음
- 필터링 후 총 6개의 중복 응답범주로 계급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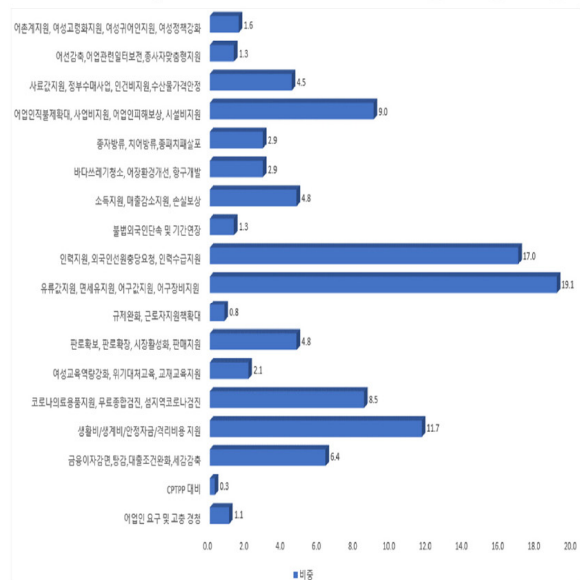
[그림] 여성어업인의 인력 수급 방식 text mining & wordclouding

29

2. 정책수요(Demands)

코로나19 유사 상황 반복 시 지원 희망 사항 텍스트 마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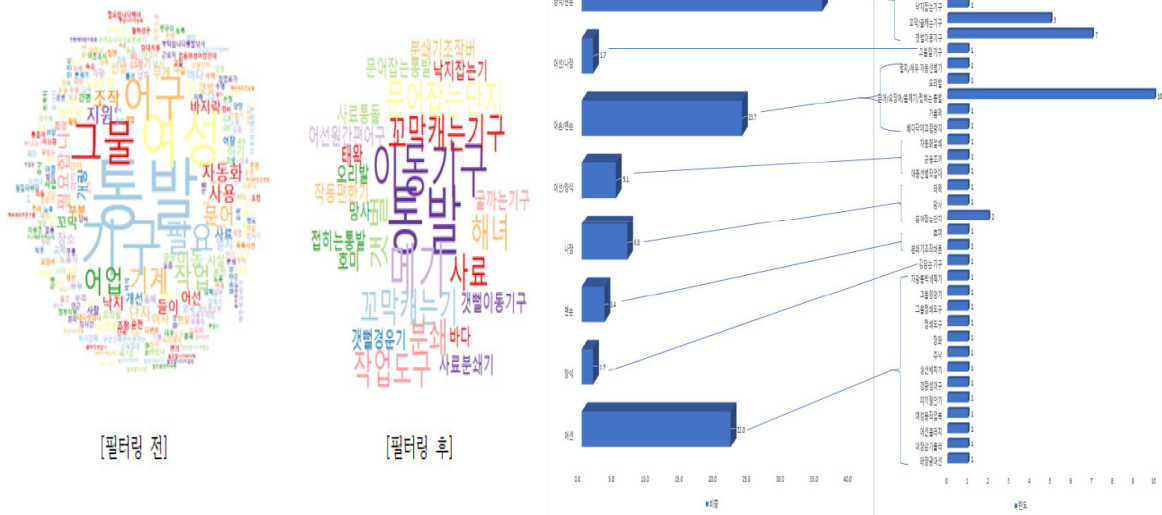
- 표본으로부터 필터링 전 총 377개의 중복 응답이 나왔음
- 필터링 후 총 18개 중복 응답범주로 계급화 됨



[그림] 여성어업인 지원 희망 사항 text mining & wordclou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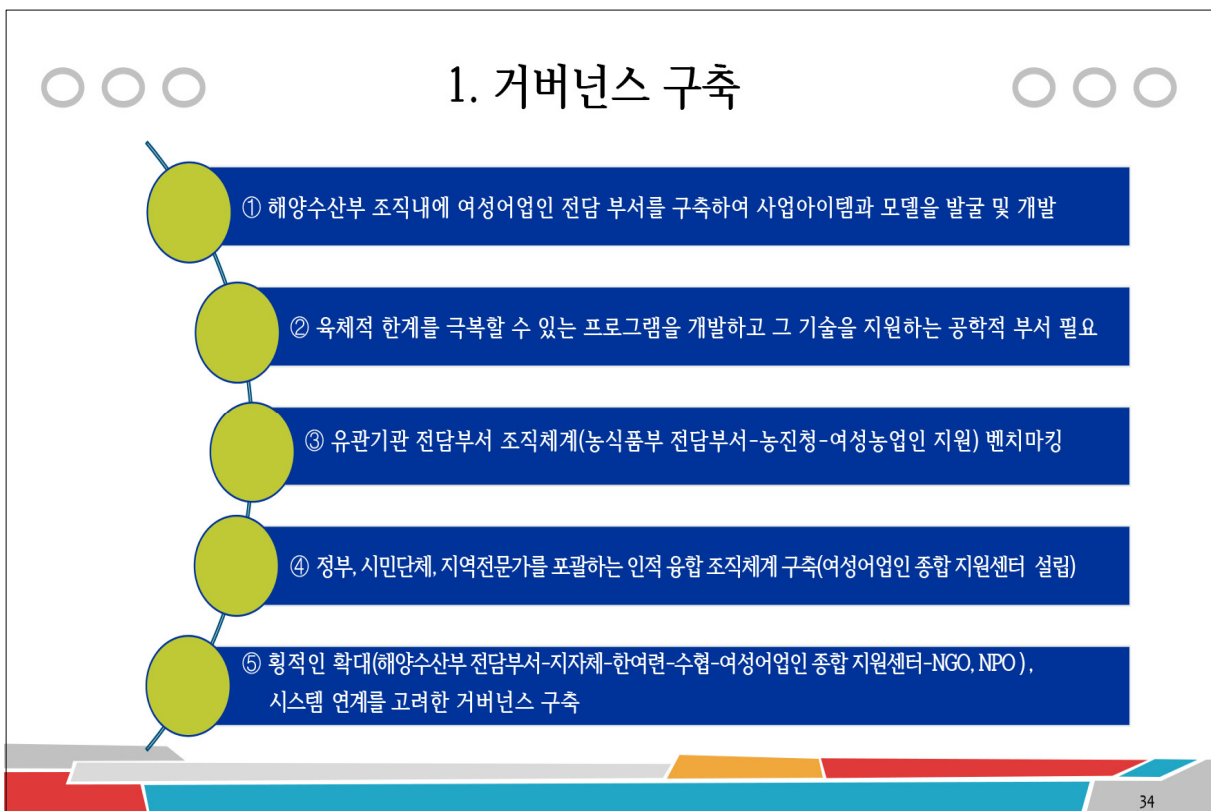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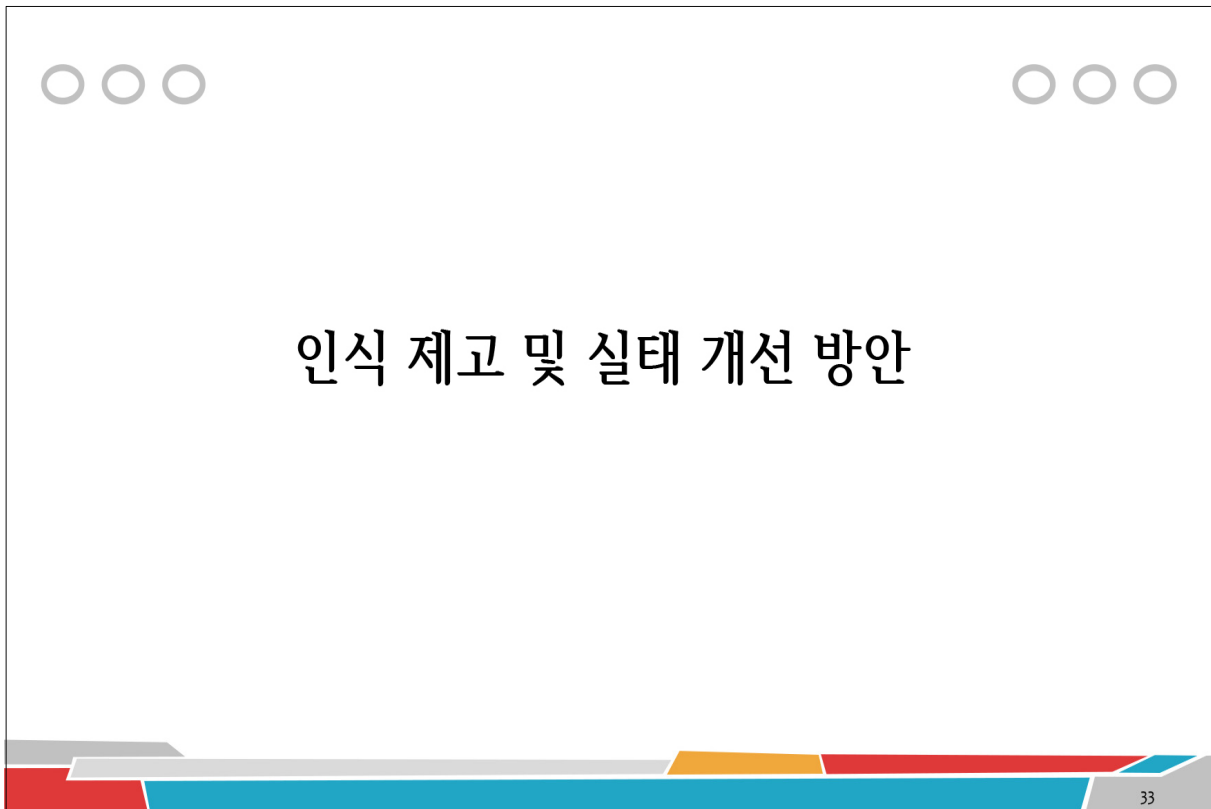
30

- ☞ 여성어업인들의 작업 효율화를 위한 개량 필요 어구 텍스트 마이닝
- ☞ 표본으로부터 필터링 전 총 63개의 중복 응답이 나왔음
- ☞ 필터링 후 총 59개 개량 필요 어구를 중복 응답범주로 계급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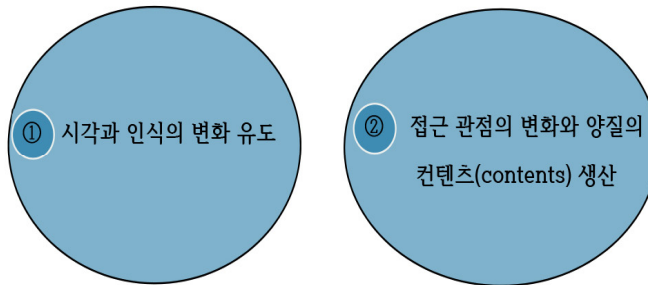
[그림] 여성어업인 개량 필요 어구 text mining & wordclouding

IV.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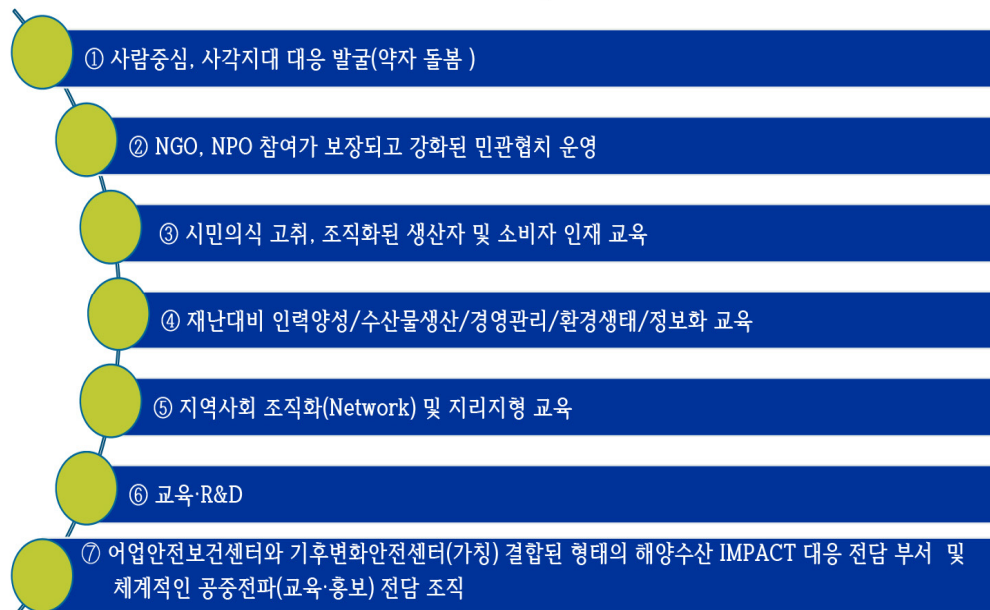
2. 교육홍보사업을 통한 공중전파 강화



35



3. 재난대비 역량강화



36



4. 지원기반 내실 강화



- ① 여성어업인 기반사업 관련 지원 정책 확대
- ② 인력·기관 확충
- ③ 여성어업인 관련 실태통계 정보화

37



5. 여성어업인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



- ① 어업인 확보를 위한 정부 사업비 운용 점검
- ② 음자 절차상의 문제점 개선
- ③ 사업대상자 개인별 사업비 지원 맞춤 운용
- ④ 진입 성장 장애 요인 제거
- ⑤ 여성어업인 교육 체계 개선
- ⑥ 인력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38

○○○

6.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

① 실무형·현장형 정책 기획

② 전문성과 조직성을 가진 기관 구축과 전문가 양성

③ 미래의 변화와 충격을 대비하는 입체적인 정책 모니터링

④ 여성어업인 저소득 사각지대 발굴 지원

39

○○○

감사합니다.

○○○

40

「여성어업인이 만드는 어촌·어업의 미래」국회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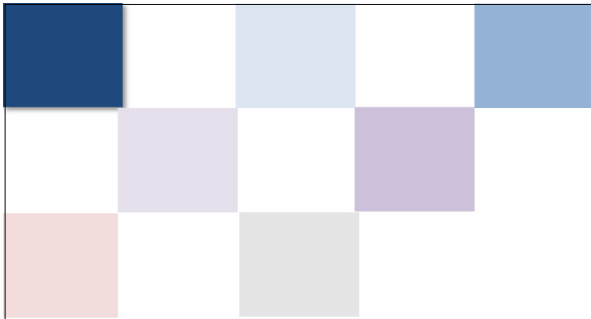
발제 2

어업·어촌현장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삶

임 우 연 박사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여특위 위원





어업·어촌현장에서의 여성어업인의 삶

2022. 12. 15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우연

Contents 목차

- I. 2022년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개요
- II. 여성어업인의 삶: 현장간담회 결과
(여성어업인의 가치, 차별경험, 애로사항, 정책제안)
- III.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



I. 2022년 여성어업인 현장 간담회 개요

추진 배경

- 노동력의 지속적 도시유출, 어촌으로의 인구유입감소,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어촌의 인력난 심화
- 여성의 수산업종사 및 어업노동 참여증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한 여성어업인 역할 증대 대비 낮은 삶의 질 문제
- 수산업발전 및 바다환경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에 비해 낮은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 정책지원 필요

추진 목적

- 어업 및 어촌 삶의 현장에서 여성어업인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여성어업인 정책 수립 방향 모색
- 여성어업인 지위 및 권익향상 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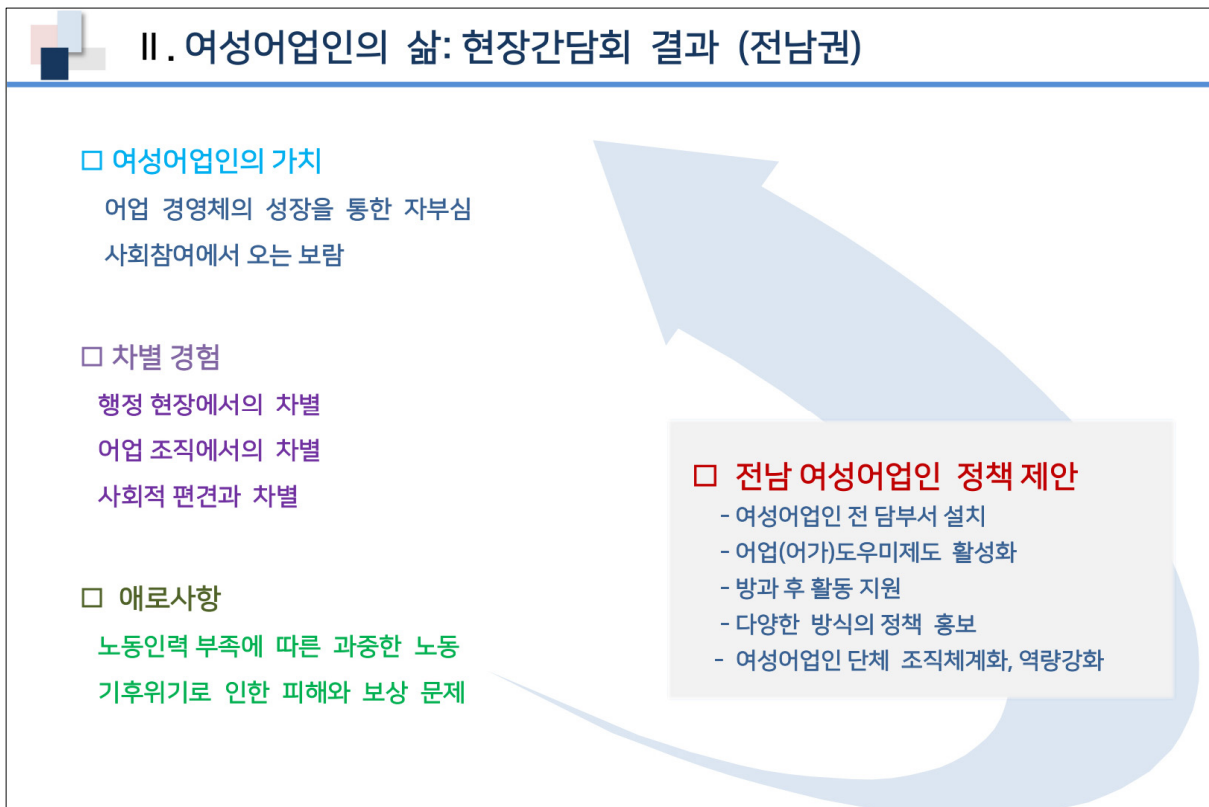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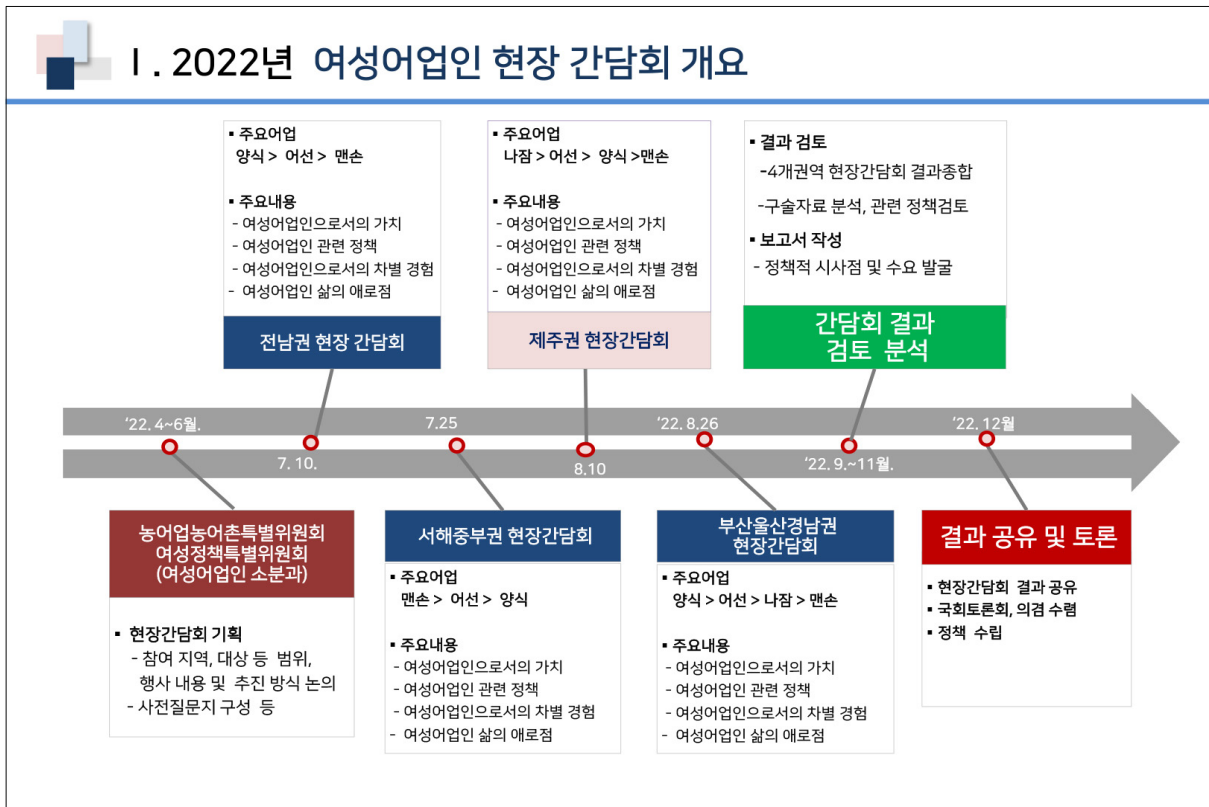
I. 2022년 여성어업인 현장 간담회 개요

행사 개 요

권역	개요
전남권	○ 일시 및 장소: 2022.7.14.(수) 14:00~16:30/목포수협 대회의실 ○ 참석 여성어업인 25명 평균연령 : 57.6세(최대 67세, 최소 40세)/ 어업경력 : 25.5년(최대 43년, 최소 12년)
서해 중부권	○ 일시 및 장소: 2022.7.25.(월)14:00~16:30/수협중앙회연수원(전안) ○ 참석 여성어업인 21명 평균연령 : 60.8세(최대 71세, 최소 51세)/ 어업경력 : 26.2년(최대 40년, 최소 6년)
제주권	○ 일시 및 장소: 2022.8.10.(수) 13:30~16:00/ 제주농어업인회관 ○ 참석 여성어업인 29명 평균연령 : 63.9세(최대 72세, 최소 50세)/ 어업경력 : 33.7년(최대 60년, 최소 6년)
부산울산경남권	○ 일시 및 장소: 2022.8.26.(금) 13:30~16:00/부산시수협 대회의실 ○ 참석 여성어업인 27명 평균연령 : 64.8세(최대 76세, 최소 40세) / 어업경력 : 32.1년(최대 54년, 최소 1년)

역 할 분 담

주체	주요 역할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여성어업인소분과	○ 간담회 전체 기획 ○ 사전질문지 구성 및 분석 ○ 간담회 토론 진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제5차여성어업인육성계획'주요내용발제 ○ 현장의견정책반영
지방자치단체 (전남, 충남, 제주, 경남, 부산)	○ 장소 선정 협조 ○현장의견정책반영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 수협을 통한 장소 선정 협조 ○ 여성어업인참석자섭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 지방자치단체 협조 ○ 행사 홍보 등 간담회 전체 운영



II. 여성어업인의 삶: 현장간담회 결과 (서해중부권)

□ 여성어업인의 가치

- 어촌문화의 변화, 양성평등 실현 및 수산산업 변화의 주체
- 의사결정 강화에 따른 자부심
-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소속감

□ 차별 경험

- 전문직업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음
- 행정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성불평등

□ 애로사항

- 부족한 일손 문제에 따르는 과중한 노동
특히 외국인 선원 구인난에 따르는
대체노동자로서의 여성어업인 역할 가중
- 건강, 일생활균형 관련 삶의 질 저하
- 노동환경 개선의 어려움 지속

□ 서해중부권 여성어업인 정책 제언

- 출산과 돌봄 지원 강화
- 귀어 여성어업인 유입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여성어업인 전담부서(조직) 및 인력 확보
- 여성어업인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직업적 가치 제고, 여성어업인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부여

II. 여성어업인의 삶: 현장간담회 결과 (제주권)

□ 여성어업인의 가치

- 해녀활동을 통한 수협 이사 선출, 공연 통해 해녀 문화 전파
-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로 자긍심 고취
- 해녀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성취(지역사회 기여 인정 및 포상, 봉사 등)

□ 차별 경험은 찾아보기 어려움

- 제주해녀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존중, 자부심

□ 애로사항

- 해루질,스킨스쿠버에 의한 어업질서 훼손 문제
-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
- 선원 인력난 심각
- 열악한 단체 활동 여건(사무실 등)
- 안전사고 위험/ 해녀 운송선박 노후화/해녀고령화로 인한 위험

□ 제주 여성어업인 정책 제언

- 귀어자 어촌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체험 여건 마련
- 원활한 어촌계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기존 해녀에 대한 추가 지원 고려

II. 여성어업인의 삶: 현장간담회 결과 (부울경권)

□ 여성어업인의 가치

- 어업인의 역할 다양화에 따르는 중요도 제고

□ 애로사항

- 과도하게 많은 어구 설치로 조업 경쟁 심화 및 수산자원 악영향
- 비효율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방식
- 해루질로 인한 피해
- 바다매립에 따른 조업어장 상실
- 수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 상존
-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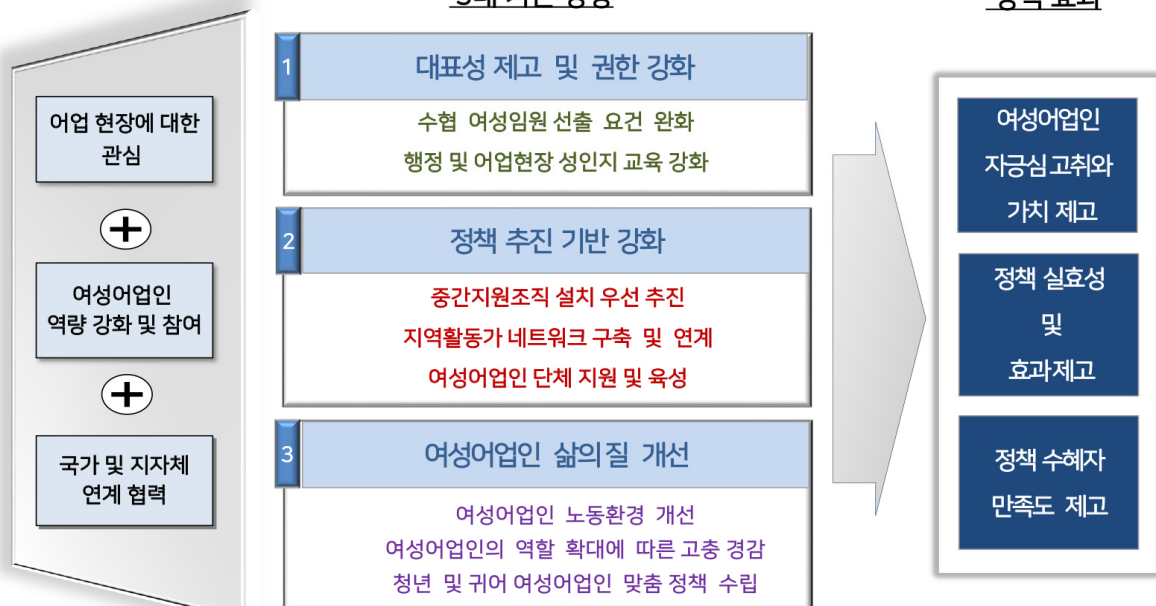
□ 부울경 여성어업인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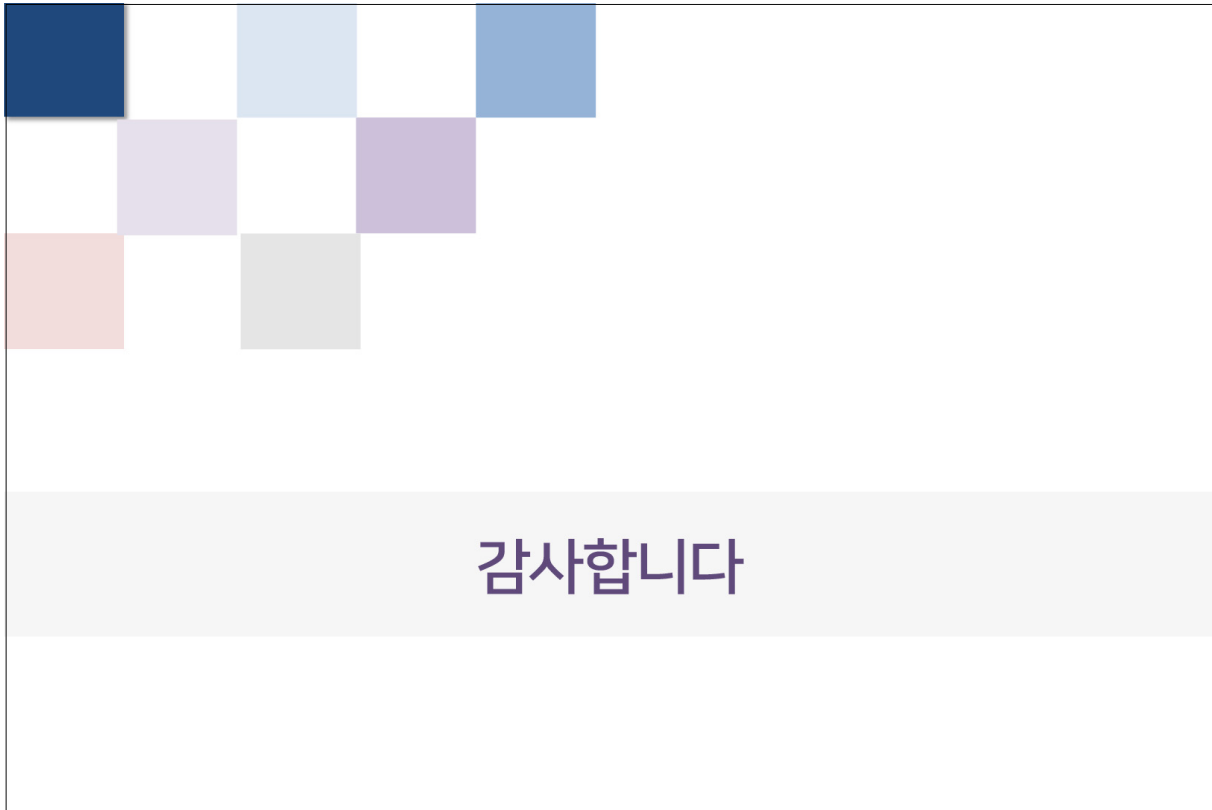
-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계획의 실질적인 추진
- 청년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청년어업인 어촌계 가입 활성화 유도
- 여성어업인 맞춤형 어업기자재 지원
- 육지해녀와 제주해녀 정책지원 격차 해소

III.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

3대 기본 방향

정책 효과





「여성어업인이 만드는 어촌·어업의 미래」국회 토론회

토론

여성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어촌·어업의 미래

좌장 : 최성애 박사(경남연구원)

- 전문가 이순미 박사(KREI), 엄선희 박사(KMI)
- 정부 해수부 이종호 소독복지과장
- 현장 이영순(한여련부산시분회장), 김영화(한여련강릉시분회장)
- 언론 주현주 기자(농어민신문)



토론문

여성어업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 정책과제

이 순 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여성농업인 정책의 부상과 발전이 여성농민 운동의 집합적 요구가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제도화되는 과정이었음을 상기하면, 현재 여성어업인 정책의 발전 단계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조직화와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와 같이 당사자 목소리를 정책 의제화하는 공론장 마련은 정부나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민간 부문이 주도적·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행위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어업인들이 서로의 삶을 이야기 나누고 그 속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의사결정 단위에 건의하는 ‘대의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2 현장간담회 기반 여성어업인 정책 방향에 대하여¹⁾

성평등 정책 전략은 성별 격차 완화, 여성의 저발전 상태 개선에 초점을 둔 ‘여성 중심 접근(Women In Development: WID)’에서 성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둔 ‘젠더 기반 접근(Gender And Development: GAD)’으로 진전되어 왔다.

WID 접근은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증진하고 빈곤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회 전반의 성별 분리 구조는 문제시하지 않은 채 여성의 현재적 불이익 개선에만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성차별과 여성 주변화를 재생산한 것으로 비판된다.

1) 해당 단락은 이순미, 2021. 지방자치단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옴

반면, GAD 접근은 성 불평등에 도전하고 성별 분업과 여성의 종속적 지위 변화를 요청한다. 농업정책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여성 비율 할당제, 선정 시 가점제도 등), 가족공동경영협약 및 공동경영주 제도, 농정의 성 주류화 제도 적용, 농업·농촌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등의 조치들이 GAD 접근에 기반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GAD 접근이 WID 전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적 의제에서 주변화된 어업·어촌이나 농업·농촌 분야와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주변화된 여성에 대한 접근은 여성 특수 정책과 젠더 관점 통합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GAD 접근에서 여성은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성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요청하며 실천하는 적극적 주체로 인정된다. 따라서 여성어업인단체는 이러한 여성 주체화의 핵심 기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장간담회에서 제출된 정책 방향은 여성어업인의 주체화와 여성어업인 특화 정책이라는 이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발전 과정은 현단계에서 여성어업인 정책이 더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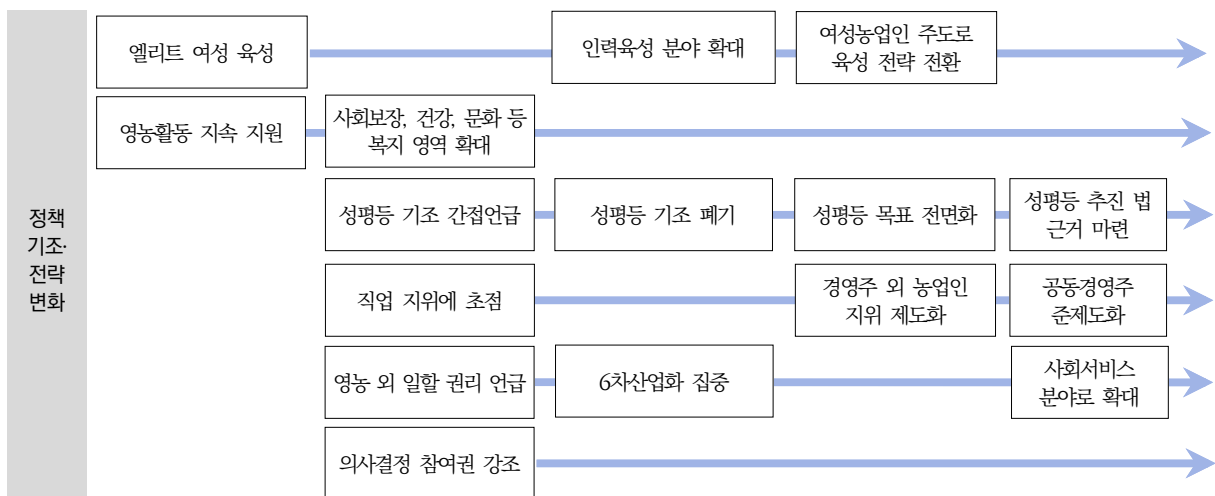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단계 여성어업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는 여성농업인정책 3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단계 정도가 아닐까 한다. 문제는 제3차 기본계획이 성평등 기조를 폐기하고 농촌여성 복지시책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자체 행정 체계 내에서 “여성농업인들은 매번 뭔가를 지원해달라 요구만 하는 집단”으로 간주되고, “여성농업인 정책은 생활상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잔잔한 업무’”로 정책 의의를 축소하는 인식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정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어업인 조직화와 주체화가 필요하고 아래로부터 정치 공론장을 형성하여 영향을 미치는 전략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전담부서 설치, 중간지원조직 설치, 여성어업인단체 육성에 더 큰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와 전략 변화〉

	1차('01~'05)	2차('06~'10)	3차('11~'15)	4차('16~'20)	5차('21~'25)
정책 목표	전문인력화, 지위 향상,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농촌발전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남녀 파트너십 정착	창조성·전문성·리더십 겸비 여성농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	성평등을 통한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

차수별 주요 제도 및 사업

추진 체계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98)	- 농촌사회과로 업무 통합('09)	- 농촌복지여성과로 개편('13)	- 농촌여성정책팀 신설('19)	
지위 향상	- 농협 복수조합원제('94)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정('01) - 가족경영협약 교육캠페인('04)	- 농업경영체 등록제('08) - 농업인확인서 발급('09)	- 경영주 외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개편('11) - 경영주 외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개정('12) - 농협 여성이사 의무선출('14)	-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16)	- 목적과 책무에 성평등 포함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21)
인력 육성	- 여성 후계농업인 20% 우선 선정('98)		- 농촌형 여성새일센터(여성가족부, '14)	- 영농여건 개선 사업('20) - 농촌 성평등 전문강사단 양성-운영('20)	- 청년여성 일 경험 탐색 교육('22) - 사회적농업 선정 여성가점제('21)
삶의 질	- (출산)농가도우미('00) → 지자체 이양('05) - 여성농업인센터('02) → 지자체 이양('05)	- 취약농 영농가도우미 지원(농협, '06) - 농반기 마을공동급식(자자체, '07) - 농촌소규모보육시설 지원('09)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자자체, '12)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 놀이교실('13) - 농반기 주말 돌봄방('14) - 농업안전보건센터('13)	- 출산급여 지급(고용노동부, '19)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21)



자료: 이순미, 2022. “제9장.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조성은 외, 「더 나은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세부 정책 방향: 여성농업인정책 다르게 따라잡기

어업·어촌의 젠더 환경과 주체의 역량 조건이 농업·농촌과 다르므로 정책 모델의 벤치마킹은 하되 실행 원리와 작동 방법은 달라야 한다.

1)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

중간지원조직의 위상과 역할 설정에서 여성농업인센터라는 정책 경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는 ‘지역사회 공공적 확장형’, ‘여성농업인 경제·사회 역량강화 지원형’, ‘농촌주민 문화센터형’, ‘지역사회 돌봄 제공형’으로 역할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비중을 보면 지역주민센터나 문화센터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개 유형 중 ‘지역사회 공공적 확장형’은 지역 내 여성, 단체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를 매개하고, 공공의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거버넌스 기능을 하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에 가깝다.

〈활동 내용에 따른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유형〉

구분	지역사회 공공적 확장형	여성농업인 경제·사회 역량강화 지원형	농촌주민 문화센터형	지역사회 돌봄 제공형
센터 수	3(7.7%)	11(28.2%)	21(53.8%)	4(10.3%)
평균 사업 수(건)	18.3	14.8	11.9	19.8
평생교육	4.7	2.3	0.8	1.8
경제/소득 관련	4.7	3.9	1.6	2.5
교류·네트워킹	4.7	0.9	0.6	1.5
조사·정책논의	1.0	0.4	0.1	0
지역 돌봄 봉사	0.7	0.7	0.8	4.3
문화·건강	4.7	6.6	7.9	8.3

자료: 이순미(2021: 91)

여성농업인센터의 교훈을 인지하여 여성어업인 중간지원조직은 1) 정책 실행 지원 및 정책 개발, 2)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하는 준공공기관형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

〈여성어업인 중간지원조직 기능 예시〉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성평등 확산
- 성인지 평가지표 마련 - 여성어업인실태조사 지원 - 성인지 통계 생산 - 현장체감형 정책개발 지원	- 여성어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귀어귀촌 여성 농촌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여성어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어촌 특화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 성평등 활동조직 육성

2) 사업을 통한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

비영리 임의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경상비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구해도 관철되기가 불가능하다. 여성어업인단체의 활성화에 정책이 줄 수 있는 도움은 사업과 활동을 통한 조직력 강화일 것이다. 예컨대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 사업’과 같이 마을, 면으로 찾아가는 교육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만들고 그것을 여성어업인단체가 수행하면서 조직력과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그러하다.

3) 어가도우미 제도

어가도우미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는데, 첫째, 어로활동이 가능한 인력 확보 어려움, 둘째, 평균적 어가 소득 수준에 비해 비현실적인 도우미 인건비, 셋째, 부부 혹은 공동작업의 파트너십, 숙련도 등으로 어로활동을 타인이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제약으로 지적된다. 사고, 질병으로 인한 도우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출산도우미는 일손돕기가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가의 평균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수혜를 받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어가에 특화된 아이돌봄서비스 시행이 꼭 필요하다.

토론문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

엄 선 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올해부터 정부는 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에는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복지 환경 개선,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여성어업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한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 등 5개의 추진전략과 13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여 여성어업인이 어업과 어촌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그동안의 기본계획 보다 좀 더 거시적인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방향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 분야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추진 결과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여성어업인의 날(10.10)을 지정하고,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를 법인화하여 여성어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여성 어업경영주 비율 확대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을 가능케 하여 경영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협·정부위원회 등에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고 어업인 후계자 육성을 위해 여성 및 다문화 구성원을 우선 선정토록 수산업경영인 육성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등을 도입하고 돌봄 지원 사업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관심 부족, 전담 부서 및 인력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부족과 여성어업인이 원하는 교육 및 시설 지원 등에는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그동안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에 대해 어업 현장의 체감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어업인의 역사는 어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정책으로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이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업 현장 여성어업인 육성에 대한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5년 후에는 여성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기대해 봅니다.

토론문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22~'26년)」 (요약)

이 종 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1 목표 및 추진 전략

비전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여성어업인
목표	▶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 ▶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위상 제고 ▶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추진전략	추진과제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	①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 기반 확보 ② 관심, 준비·실행,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복지 환경 개선	① 여성친화형 기자재 개발 등 작업환경 개선 ②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강화 ③ 여성어업인 출산 및 돌봄지원 ④ 낙도 생생쉼터 등 복지서비스 강화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① 여성어업인 대학과정 신설 등 교육체계 개편 ②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③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여성어업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① 여성어업인 육성 전담조직 확보 ② 실태조사 및 통계확보 등 데이터 구축
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한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	① 공동경영주 제도 개편 등 법령개정 ② 여성어업인 참여 확대

1 세부 추진계획

1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

-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여성어업인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추진력을 향상
 - * 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공공기관을 지정하되, 중앙은 본사, 지역센터는 지사에서 운영
 - (역할) 돌봄, 고용, 노동·법률 등 상담, 고용지원 등 소프트웨어 분야 및 건강, 의료, 교통, 환경개선 등 하드웨어 분야 지원 추진
 - (규모) 중앙 센터 1개소(8명)는 본사 소속, 지역센터는 지사 소속으로 10개소* (개소별 4명)를 설치하되, 각 센터는 기관직원과 지역인재로 구성
 - *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부산, 제주
 - (지원근거 마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해수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는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해수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법」에 지정 근거 및 요건을 명시
- (단계별 지원체계) 신규유입 여성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및 확대
 - (관심단계) 정보제공, 초급 어업교육, 체험 등을 통해 어업·어촌에 대한 관심도 제고, 여성어업인 단체의 귀어귀촌 박람회 등 참여 지원
 - (준비·실행단계) 융자 등 자금지원 확대 및 개선 및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 신설, 사업·교육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우대(가점 등) 추진
 - * 영어조합법인, 어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시설, 장비구입, 컨설팅 등 지원
 - (정착단계) 정착자금(어가경영비 등) 및 귀어인의 집, 빈집 리모델링 등 주거 지원 사업 추진 시 여성어업인 우대 추진

2 여성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복지 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 여성어업인 친화형 수산 기자재 개발·개선 및 세미나 등 사용 유도를 통해 여성어업인의 노동 강도 경감
 - * R&D 시행 후 경량·자동화 장비를 중심으로 개발 및 보급 추진

- 대형 수산기자재* 위주의 장비임대사업을 편의·소규모 장비**까지 확대
 - * 어선형해상크레인, 다목적 해상상작업대(크레인 및 선별기 포함), 트랙터, 활어차 등
 - ** 갯벌 작업용 회전의자, 소형 전기 운반차 등
- (건강관리 강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전체 여성어업인 대상으로 확대 검토
 - 낙후지역에 의료진이 방문, 건강예방 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주민건강 리더를 양성
- (출산 및 돌봄지원) 출산 시까지 원격진료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출산 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 * 공공산후조리원+소규모 해양치유센터 개념이며, 산후조리시설, 산모가족 숙박·힐링 시설, 차량 구입 등 지원, 인근 관광지, 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
- 어업활동이 불가능한 여성어업인에 대한 대체인력(어업도우미) 지원 확대, 지역 대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을 이용한 교육도우미 도입 검토
- (복지서비스 강화) 낙도·벽지지역에 찾아가는 취미교육 등을 제공하는 ‘낙도 생생쉼터’ 도입 검토
 - * 기존 어업인안전쉼터 등을 문화 활동, 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 실태조사 추진

③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체계 마련

- (교육체계 개편) 여성어업인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중앙 여성어업인 지원센터에서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표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지역 여성어업인 지원센터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 전문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 개설 및 운영
 - 접근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 1개소씩 지정(매년 1개소)하고, 전문 어업기술 교육을 기반으로 특화 교육과정 운영
- (교육관리) 여성어업인의 교육 접근성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관리 체계 마련
 - 수산정보통합시스템 등*에 교육이수 실적 입력, 이수증 출력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어업인 불편 해소**
 - * 기능개선 대상 시스템은 미정 / ** 교육이수증 재발급 시 각 기관별 방문 또는 접수 불요

④ 여성어업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전담 인력·조직 확보) 우리부 내 여성어업인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어촌여성정책팀(가칭) 신설 추진
 - 지자체 대상으로 ①여성어업인 전담인력 확보 우선 추진(5차), ②전담조직 설치 지원(6차), ③시·군 단위 수산사무소 확대(7차) 등 단계적 추진
- (정책 기초자료 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약식*으로 진행하던 여성어업인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
 - * 기본계획 수립 시 소규모로 실시해왔으며, 정식 실태조사 용역 미실시
 - 각종 수산업 관련 통계에 여성 통계가 표출될 수 있도록 강화
 -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에 따라 자연인이면 성별을 구분하여 관리토록 규정

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어업인 위상 제고

- (공동경영주 제도개선) 「농어업경영체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공동경영주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고 지위를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 * 경영주/공동경영주, 가족종사자(무급/유급)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원범위 마련
 - 생계를 위해 겸업에 참여하는 여성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인정 기준 마련
 - *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우 소득(의료보험 직장가입 등)이 있으면 공동경영주 등록 불가
- (표준조례 보급) 최근 「여성어업인육성법」 개정사항 반영 및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행** 등을 위해 표준 조례 보급 및 정비

토론문

여성어업인 맞춤형 지원 필요성

이 영 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부산시 분회장)

1 여성어업인 교육의 현실

- 어업인은 타 직업군에 비해 지역과 종사어업에 따라 시간적 제약이 매우 크고 더욱이 여성어업인의 경우에는 어업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를 대신할 대체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성어업인은 생업을 포기하고 교육을 받거나 없는 여가시간을 쪼개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어렵게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여성어업인의 니즈를 반영한 세심한 교육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어업인이 주로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문화강좌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여성이 어업 내에서 남성을 대체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며 단순노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어로·양식·기술교육·어선안전교육 등과 같이 어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교육은 남성이 대표로 이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여성어업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 기관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는 주체가 시간, 장소, 내용을 고려해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 명확한 교육 목표와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별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지역별·업종별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여성어업인 맞춤형 어업기자재 지원

-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어촌은 여타 부문에 비해 척박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령화,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여성어업인은 어촌사회와 어가를 지탱해옴과 함께 수산업으로 숙련된 어업 노동력을 꾸준히 공급해 왔습니다.
-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고 여성어업인의 노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정책적 관심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여성어업인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 크기나 힘의 차이가 있고, 활동 어종도 다른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어업기자재를 필요로 하나 그러한 지원 및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 여성어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형 기자재 개발, 장비 임대, 수리 확대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토론문

여성어업인의 현실과 발전 방향

김 영 화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강릉시 분회장)

1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 여성어업인들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하여 어작업에 따른 직업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어업뿐만 아니라 살림 및 육아 등 가사 활동의 이중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여성어업인의 어작업 기인으로 인한 질환 검진 및 예방을 위하여 올해부터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실시하는 특화건강검진 항목은 골밀도 측정, 근육량 측정, 무릎방사선 촬영 등으로 일반 건강검진과 일부 항목이 중복되며 검진 항목이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종사어업에 따라 필요한 검진 항목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 설정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 또한 특화건강검진 지정 병원의 수가 너무 적고 지역에서 동떨어져있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더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 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의 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2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 여성어업인은 가정 내 소득, 어업활동 및 어촌사회 등에서 중요성이 높고 기여도도 높은 편이지만 정작 그 위상은 ‘보조어업인’으로 낮은 편입니다.
- 여성어업인의 낮은 위상은 여성어업인 외 여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 본인도 본인의 지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사회적 인식 전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도 고려해야 합니다.
- 활발한 활동과 사회적 기여도 제고를 위해 가사노동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업 활동이 어려운 여성어업인을 도와주는 어가도우미 사업이 18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은 미미합니다. 가사도우미 분야 확대 및 어촌 맞춤형 보육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성어업인과 젊은 세대가 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어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토론문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 디테일에 달렸다

주 현 주 (한국농어민신문 기자)

2001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제정되고,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이 수립돼 왔으며, 올해부터 제5차(2022~2026) 기본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여성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의 경우 1차는 미수립, 2차(2006년)에서 처음 수립됐지만, 3차부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농업’ 중심이라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4차부터 농업과 어업을 분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4차, 5차 여성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직업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성평등 확산 등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과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본계획에서 ‘여성어업인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의 특색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직업적 지위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 작업, 복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에서 요구되는 점은 농촌과 어촌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 정책 또한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 과제입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 만큼은 농업과의 차별성이 보여야 하는데, 기본계획에선 여성어업인만의 특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5차 기본계획에서 첫 번째 과제로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을 통한 어촌지역 소멸위기 극복’이 제시돼 있습니다. 청년·귀어·결혼이민 여성 등 신규 여성어업인 유입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한다는 목표가 제시됐고, 이를 위한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 등의 추진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귀어귀촌 정착자금,

소규모 창업지원 자금, 초기 장착자금 등 세부 자금지원 내용도 포함됐지만, 이러한 정부 계획을 보고 실제로 어촌으로 들어오는 여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 지난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에서 굴 양식업을 하는 40세의 한 청년여성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여성이 어민후계자로 등록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어렵게 등록이 되어도 정부 정책자금 대출 시 복잡한 절차와 충분한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스스로가 자금 대출보다 더 우려했던 점은 과연 신규 여성어업인이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이 어촌에 들어올까? 이 자체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사정으로 일을 돕기 위해 어촌으로 들어온 사례였습니다.

결국 신규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공한 여성어업인들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촌에 정착해 성공한 여성어업인들의 디테일한 모습을 통해 어촌에서도 여성이 살만하고, 심지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농업보다 어업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 등 어촌의 매력을 알리고 홍보해야 합니다. 단지 정부 계획만 보고 어촌의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촌과 어업에 접근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앞선 청년어업인의 사례와 같은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양식업종이 아니어도 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해서 발전·확산시킬 수 있는 여성어업인 활동가도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여성어업인 중에서도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꼭 어업이 아니어도 어촌에 머물면서 어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정책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부 형태의 연령대가 높은 40·50대의 귀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어업에 도전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어촌만의 특색 있는 성공 모델도 나와 줘야 합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촌여성정책팀이 여성농업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해수부의 경우 여성어업인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 여성어업인 정책이 발굴되고 확산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여성어업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확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어업인 입장에선 여성농업인 정책 수준만큼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있고, 해수부 역시 벤치마킹을 통해 예산 수립 과정 등에서도 한층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고, 당장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연장선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폐쇄적인 어촌계 특성상 남녀평등 인식이 낮고, 이러한 문화는 신규 여성어업인들의 진입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어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들이 수협임원이나 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했을 때 청렴도가 높아지는 등의 장점도 함께 알려나가야 합니다.

「여성어업인이 만드는 어촌·어업의 미래」국회 토론회

붙임자료

2022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결과



I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추진 배경

- 노동력의 지속적 도시 유출, 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감소, 노동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어촌의 인력난 심화
- 여성의 수산업 종사 및 어업 노동 참여 증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위한 여성어업인 역할 증대 대비 낮은 삶의 질 문제
- 수산업 발전 및 바다 환경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에 비해 낮은 사회 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 정책 지원 필요

나.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

- 어업 및 어촌 삶의 현장에서 여성어업인의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여성어업인 정책 수립 방향 모색
-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지위 및 권익 향상 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에 초점

2 추진 방법

가. 행사 구성

- 개회식(5분) :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 개회사(5분)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환영사**(5분) :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 **발표**(20분) : 해양수산부(‘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계획’ 주요내용)
- **토론**(105분) : 참석자 (사전 질문지 활용 의견 수렴, 질의 응답 등)
- **폐회**(5분)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나. 역할 분담

주체	주요 역할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여성어업인소분과	● 간담회 전체 기획 ● 사전질문지 구성 및 분석 ● 간담회 토론 진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계획’ 주요 내용 발제 ● 현장 의견 정책 반영
지방자치단체 전남, 충남, 제주, 경남, 부산	● 장소 선정 협조 ● 현장 의견 정책 반영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 수협을 통한 장소 선정 협조 ● 여성어업인 참석자 섭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 지방자치단체 협조 ● 행사 홍보 등 간담회 전체 운영

II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결과



1

[전남권]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가.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7.14.(수) 14:00~16:30 / 목포수협 대회의실
- 참석자 : 여특위, 한여련, 해수부, 전남 등 47명 ※ 세부 참석자 명단 부록1 참고
- 좌장 및 주제 발표
 - 좌장 : 김영란 여특위 위원장
 - 발표 : 해수부 소득복지과 이종호 과장

나. 참석자(여성어업인) 현황 분석

- 참석인원 : 25명
- 연령·경력·거주기간
 - 연령 : 평균 57.6세(최대 67세, 최소 40세)
 - 어업 경력 : 25.5년(최대 43년, 최소 12년)
 - 해당 지역 거주기간 : 33.7년(최대 67년, 최소 9년)
- 종사업종 분포
 - 하나의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전체의 76.0%, 두 개 이상의 어업에 종사 하는 경우는 24.0%로 나타남
 - 단수 어업의 경우 양식어업의 비중이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선어업 12.0%, 맨손어업 8.0%였음
 - 복수어업은 어선어업과 맨손어업, 양식어업과 맨손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가 각각 8.0%씩이며,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양식어업과 기타에 종사하는 경우는 4%씩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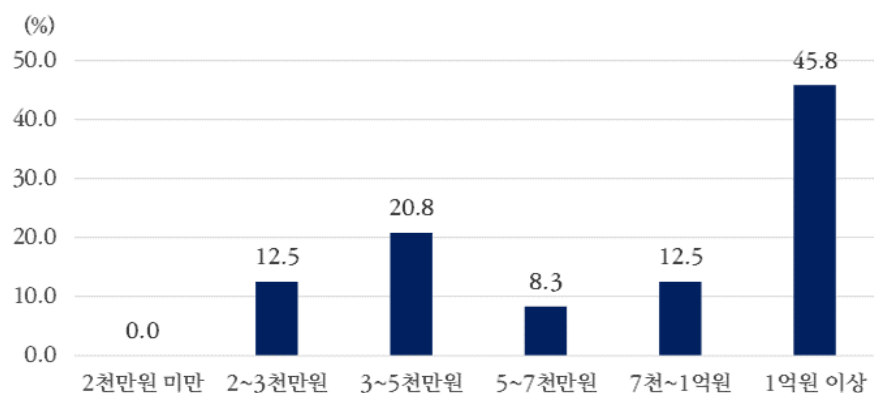
〈표 1〉 전남지역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종사업종 분포 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단수 어업						복수 어업				
		소계	어선 어업	양식 어업	맨손 어업	나잠 어업	기타	소계	어선+ 양식	어선+ 맨손	양식+ 맨손	양식+ 기타
비중	100.0	76.0	12.0	56.0	8.0	0.0	0.0	24.0	4.0	8.0	8.0	4.0

□ 소득 분포

-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연간 소득은 **평균 7,292만원**으로 추정됨
- 소득 구간별로는 **1억원 이상**이 전체의 **4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3~5천만원 20.8%, 2~3천만원과 7천 1억원이 12.5%씩의 순이었음



[그림 1] 전남지역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연간 소득 분포

다. 주요내용

1) 여성어업인으로서의 가치

□ 어업인으로서 경영체의 성장을 통한 자부심

- 장기간 어업을 하면서 전복 양식, 치패장 경영 등 경영체의 성장을 이끌어 왔음
- 어업경영의 결과 고소득을 실현하고 있기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함

30년 동안 바다 생활도 있고, 육지 생활을 했어요. 전복 양식도 하고 치패장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시련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견뎌가지고 많이 성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완도)

□ 사회참여에서 오는 보람

- 여성어업인단체에 소속되어 다양한 정부 건의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수협 내 여성 임원 선임에 대한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그 결과 수협의 여성 이사들이 선출되기 시작했고, 각종 회의 자리 등에서 여성어업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계속 해수부에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 여성 어업이 30% 넘으면 임원도 해주라 그랬는데 그게 국회에 반영이 되어서 저도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1, 영광)

요즘 여성들이 힘을 가지고 어촌계에 이렇게 임원도 하시고 이사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포수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

2)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제안

□ 여성어업인 전담 부서 설치

-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내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임
- 농업부문의 경우 농림부 내 전담부서가 있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부의 5차 여성어업인 육성계획에도 반영되었으나 계획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여성어업인]을 전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도와도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야만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라든지 남자분들 사이에서도 여성어업인들이 인정을 받아요. (김○○1, 영광)

... 지금 여기 보면 육성계획이나 어촌지역 소멸위기, 작업, 복지, 환경 개선 그런 것 들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같이 연결이 돼서... 그런데 지자체에서 여성어업인 자체를 존중을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중략) 저희가 활동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2, 신안)

□ 도우미 제도 활성화

- 어업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노동공백이 발생했을 때 도우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어업이 지속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우미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특히 어업활동은 공동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사람의 노동공백이 전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도우미 투입으로 작업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소득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음

여럿이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다쳤을 때 그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잘 됐다고 느꼈어요. (박○○, 고흥)

- 한편, 섬지역의 경우 산후 도우미 등 도우미 인력이 육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동거리 문제로 실질적인 도움이 미진하다는 의견이 있음

해남군 같은 경우는 산후 도우미나 이런 제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해남군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목포에만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 도움이 실제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 해남)

- 노동과 출산 관련 도우미 제도는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에게는 유용함. 그러나 사고 뿐 아니라 교육, 회의, 질병 등에 의한 노동공백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확대하고, 섬처럼 도우미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방과후 활동 지원 확대

- 어촌에서는 20대에 어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출산 및 돌봄 지원보다는 방과 후 활동지원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안함

이제 막 어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젊은 부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방과후 활동]까지도 지원을 해주면 출산 부분만의 지원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고요. (이○○, 목포)

□ 다양한 방식의 정책 홍보 주력

- 해수부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알기 어렵고, 특히 막 어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그러나 귀어귀촌 교육에서는 제도 관련 사이트를 링크한다든지 SNS(예: 카카오톡)로 제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서 유익함
- 해수부에서 어업인 을 받을대상 각종 사업 홍보 책자 3만부를 배포했으나 어업인 개인 혹은 가구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책에 대해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지원 수 있는 절차를 모르고, 절차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음

[젊은 귀어·귀촌 이웃에게] ‘여기 가면 다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빨리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어떻게 지원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 조목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볼게’라고는 하지만 어디에 알아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바쁘고 거기도 바쁘고 근데 그거는 수협에다 물어봐도 직원들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절차는.... (○○○, 해남)

- 정부는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를 찾고, 어업인은 사업에 대해 몰라서 대상자가 되지 못해서 생기는 사업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내용과 절차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령대별로 강구해야 함. 특히 여성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면 여성에게 보다 집중해서 정책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의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여성어업인 단체 조직체계화와 역량 강화

- 전라남도는 여성어업인의 날 행사에 예산 배정했으나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행사 진행 단체를 찾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가진 여성어업인 민간단체가 필요함

3) 여성어업인에 대한 차별 경험

□ 행정현장에서의 차별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는 전국 유일의 전국단위 여성어업인 조직임에도 시군에서 미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신안군수님 하시는 얘기가 여성어업인이 도단체 뭐하는 단체냐... (김○○1, 신안)

해남군에서 여러행사를 많이 했는데, ‘한여련 분회장님 오세요’라고 해서 갔는데 진짜. 하다못해 생활개선회 회장님까지 이름을 다 불렀는데 제 이름은 없는 거예요. (○○○, 전남)

- 사업 설명회(어촌 뉴딜사업 설명회 등) 등의 공적 자리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설명회를 가신 분중에서도 제가 여자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을 느꼈어요. (○○○, 전남)

- 시도, 시군 업무 처리 시 여성보다 남성이 유리하다는 인식 상존

도에 가거나 군에 가면 연관된 분들과 술 한 잔이라도 하려면 남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 전남)

□ 어업 조직(특히 어촌계)에서의 차별

- 여성어업인이 어촌 조직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배제됨

제가 한 번 회의를 갔어요. 저도 어촌계 소속되어 있는데.. 아니 회의를 딱 들어가 가지고 발언권을 하니까 ‘여자들이!’하는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략)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자를 누구 각시라고 하지 이름을 불러준 사람 별로 없어요. (○○○, 고흥)

-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조직 내에서 대표나 주요한 직책을 갖지 못함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옛날에 화려했어요. 근데 지금 한 80호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남자들은 몇 분 안 되세요. 여자들이 70%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분들이. 남자들이 먼저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자들이 권위주의. 내가 어촌장 한번 할랬더니 안되겠대요. 아직은 여자가 안된다는 것 같은 (○○○, 전남)

“저희 고흥도 어촌계장도 많고 대의원도 많은데 이사도 둘이나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도 남자들이 절대 권력. 대의원도 자기들이 다 해먹고”(○○○, 고흥)

“예, 맞아요, 저희도 그거 맞아요. 저희도 이제 대의원이나 이어나 이거는 여자는 없어요.”(○○○, 해남)

“[어촌계장 선거에 출마하니] 왜 여자가 나서냐, 어촌계장 자리는 남자들이 해야 남들 보기가 좋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에 가거나 군에 가면 연관된 분들과 술 한잔이라도 하려면 남자가 편하다는 거예요. [중략] 여성어업인은 그야말로 뒤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그런 식으로밖에 안되더라고요”(○○○, 전남)

- 남성어업인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에는 시도, 시군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은 인정하지 않음

여성어업인단체는 아예 인정을 안해준다는 거죠. (김○○2, 신안)

여성어업인은 나몰라라 해버려요, 여기 지자체는 아예 무시해버리고요. (김○○1 영광)

- 여성어업인을 조직 선거의 활용 인력으로 간주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의 성과(당선)를 협조한 여성어업인과 공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서도 배제하여 '존재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함. 이에 여성어업인의 존재를 알릴 방편으로 지역 자원봉사에 치중하여 존재감을 획득한다고 함

영광 법성면에 [어촌계] 여성 회원이 500명이 넘거든요. [중략] 선거 있을 때만 여성 회원이 필요하고 이런 회의나 그런 곳에서 저희 목소리는 없고..”(○○○, 영광)

조합장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발벗고 나서서 봉사, 봉사로 목포시에 봉사란 봉사는 다 쫓아다녔어요. [중략] 봉사를 위주로해서 우리[여성어업인]을 많이 알렸습니다. (양○○, 목포)

- 이상과 같은 조직에서의 성차별은 오랫동안 어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남존여비', '남성우선',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예를 들어 '남자들이 어촌계장을 해야 남들 보기에 좋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가부장문화는 일개 조직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촌 전체 사회에 퍼져있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사료됨
- 남성중심 조직에서 배제되고 무시된 여성어업인들은 자구적으로 어촌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역 자원봉사로 어업 외 활동에 전념하여 성별분업 관점을 견지하고, 남성과 동일한 어업 종사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오히려 여성어업인이 성차별을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내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여성어업인단체는 직업상 이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어업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

- 여성어업인이 여성농업인에 비해 거칠고 드세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음. 바다에서 일하는 어업의 특성이 언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성어업인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는 다를 수 있고, 거칠고 드세서 '여성답지'않다는 시각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성차별적 인식임

[남편과 함께 어업할 때] 뭐가 안 되면 이제 소리가 일단 커지잖아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여성어민들이 성격도 농민들보다 많이 난폭해지고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의 시선이 ‘바다일 한다’이러면 (중략) 전라도 말로 하하 좀 안 좋게 여성 농민들은 ‘오뉴월 뜨거운데 고생하네’이런 말이라도 듣는데. (김○○3, 해남)

- 여성어업인이 공모사업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설명회나 심사 발표에 참여할 경우 담당자가 보이는 태도에서 성차별을 느낌

... 사무관님께서 ‘여성 분이 오셨어요’. (중략) 제가 여성으로서 저 혼자 설명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 편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중략) 제가 여자라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을 느꼈어요. (○○○, 무안)

- 여성어업인이 어업영역에서 어업종사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인 여성어업인이라기 보다는 누구누구의 아내로 통합. 특히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도 여성어업인이 활동한다는 인식이 덜한 것 같다고 설명함

다들 말은 [해요], 군수님도, [여성어업인들이] 바닷가에서 많은 걸 한다고. 하는데 [여성어업인들에게] 자리는 없는 거,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김○○3, 해남)

4) 여성어업인이 겪는 애로점

□ 노동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노동

- 고령화로 인해 부모세대가 어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청년노동력의 어업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끼인 세대로서 중장년 여성들에게 어업활동이 집중됨

엄마들이 일을 안해 미치겠어요. 좀 도와주면 좋은데 ‘너는 건강하니까 일한다’ 그러고. (○○○, 전남)

저희가 이렇게 일하다보면 사람을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복지관에서 다 놀면서 ‘니는 건강하니 일을 한다’ 하세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 고흥)

- 많은 어가와 농가에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해서 해소하고 있음. 이 때 외국인 노동자 관리는 주로 여성어업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이동(더 임금이 높은 작업장으로)과 이탈(본국 돌아가는 시점 바로

전에), 정부 정책에 따른 공급 차질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몫을 여성 어업인이 맡거나 외국인 노동자 관리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임

외국인 인력들이 도망을 갔다고 해서 올해까지는 외국인 인력이 저희 고흥군에 지원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을 관리한다는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고흥)

□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와 보상 문제

- 수온 상승으로 인해 1년 중 김 양식을 하는 기간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함. 이런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져 여성의 역량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어업을 유지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를 나타냄

이제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12월 시작해 가지고 3월이면 저 끝나버려요. (중략) 이게 참 이제 기후가 변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지금 앓아서 우리 역량을, 여자의 역량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어업] 없어지면, 그런 사람[어업인]이 없어지면 우리 여기 앓아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1, 완도)

- 기후 위기로 인한 잦은 태풍으로 어업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특히 치패 양식장이 물에 잠겨 2억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으나 보상금보다는 지원금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약 580만 원을 받았음. 그러나 보상을 받기까지 정보를 모른다거나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제기 되었음.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절차가 까다롭다고 함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한대도 어떤 조금도 보상이 없고.. 이런 게 무섭구나 느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말 손해 보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진도)

- 기후 위기 때문에 겪는 어업자원의 변화는 어업생산량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데, 여성어업인들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좌절과 공포 같은 정서적 영향을 드러냈음. 이런 상황에서 어업을 지속하고 어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는 지속가능한 어촌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함의를 남김

2 [서해중부권]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가.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7.25.(월) 14:00~16:30 / 천안수협연수원 본관동 2강의실
- 참석자 : 여특위, 한여련, 해수부, 충남 등 35명 ※ 세부 참석자 명단 부록1 참고
- 좌장 및 주제 발표
 - 좌장 : 류정곤 수산특위 위원장
 - 발표 : 해수부 소득복지과 이종호 과장

나. 참석자(여성어업인) 현황 분석

- 참석인원 : 21명
- 연령·경력·거주기간
 - 연령 : 평균 60.8세(최대 71세, 최소 51세)
 - 어업 경력 : 26.2년(최대 40년, 최소 6년)
 - 해당 지역 거주기간 : 33.6년(최대 55년, 최소 6년)
- 종사업종 분포
 - 하나의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전체의 76.2%, 두 개 이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23.8%로 나타남
 - 단수 어업의 경우 맨손어업의 비중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어선어업 28.6%, 양식어업 9.5%였음
 - 복수 어업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중이 4.8%, 어선어업과 맨손어업에 종사한다는 비중은 19.0%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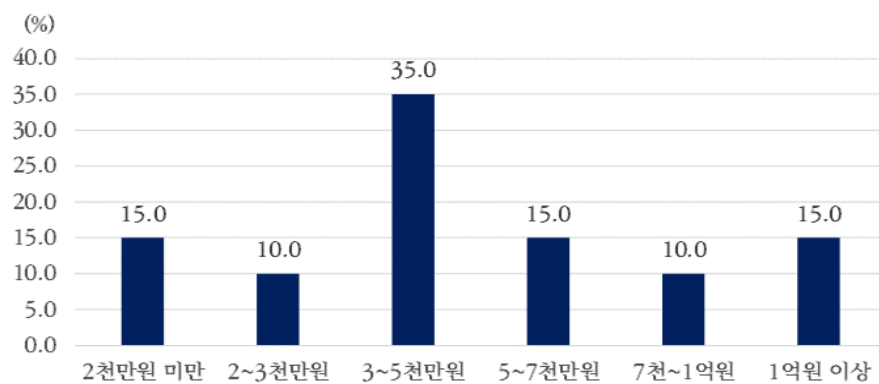
〈표 2〉 서해중부지역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종사업종 분포 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단수 어업						복수 어업		
		소계	어선 어업	양식 어업	맨손 어업	나잡 어업	기타	소계	어선+ 양식	어선+ 맨손
비중	100.0	76.2	28.6	9.5	38.1	0.0	0.0	23.8	4.8	19.0

□ 소득 분포

-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연간 소득은 평균 5,200만 원으로 추정됨
- 소득 구간별로는 3~5천만원이 전체의 3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천만원에 미치지 않는 비중은 15.0%였음
- 연소득 1억원 이상과 5~7천만원인 경우의 비중도 15.0%씩이었으며, 2~3천만원, 7천~1억원은 각각 10.0%씩이었음



[그림 2] 서해중부지역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연간 소득 분포

다. 주요 내용

1) 여성어업인으로서의 가치

□ 양성평등 실현 및 수산산업 변화의 주체

삼십 년전에 처음 결혼했을 때 원산도로가 시집이라 원산도에서 한 십 년 생활을 했었는데 너무 남성 위주였어요. 모든 방향이 어촌계도 마찬가지고 거의 여자는 뭐 그냥 일만 하는 사람, 밥만 해주는 사람, 아기 봐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어요. 30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양성평등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중략)....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지금처럼 고기 잡는 순수 어업만 하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가공업을 시작을 한 번 해봤어요” (이○○1, 보령)

- 서해 지역 특히 섬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남성중심적인 어촌문화의 양성평등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 증대
 - 과거에는 도서지역이 남성우월주의 경향이 강했으나,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여성관련 이슈의 쟁점화 및 전체 어업인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확대 필요
- 전업주부에서 벗어나 어업에 참여하면서 ‘어업인’으로서 인정받았으며, 자긍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됨
- 어업 분야의 여성들의 역할 부상, 남성 위주 수산산업에서 여성어업인들이 새롭게 만들어 가는 가공·판매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 여성어업인들이 주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변화
- 어업 이외에 수산물 활용 가공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 등 여성어업인의 보다 다양한 활동 주도

□ 의사결정 강화에 따른 자부심

남성분들은 바다에서 작업을 해 오시면 육지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거의 나머지 사업을 맞습니다. 저희가 수협에 위판을 한다든가 서울 가락동에 낸다든가는 이런 거 다 저희가 지금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김○○1, 대천서부)

-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어업인 역할 확대, 수협 위판, 가공, 수산물 시장 공급 주도 등 여성의 결정권 강화, 자부심 증대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

저희들은 1년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주말에 바다청소를 하는데 땀을 흘려 청소할 때 보람도 느껴요. 주변에서도 저희를 긍정적으로 봐주셔요.(중략)어르신들 혼자 계신 분들을 찾아가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 같은 것도 하고 마당도 쓸어 주고 진짜 그런 일을 저희는 꾸준히 해왔어요(이○○2, 태안남부)

- 바다 청소(쓰레기 수거)등 환경보호 활동과 여성어업인 단체 봉사활동(어촌지역 독거 어르신택 방문청소, 빨래, 안마 등 돌봄 지원) 참여를 통한 소속감 및 자긍심

2)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제안

□ 출산 및 돌봄 지원 강화

- 도시로 떠났던 자녀 세대의 어촌 회귀 시, 안정적인 출산·양육을 위한 병원 등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높은 우려

- 청년 세대 어업인들의 여가문화 활동 및 양질의 자녀 교육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

□ 귀어 여성어업인 유입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 필요 - 의무 거주 기간, 가입비 등 완화
- 귀어 여성어업인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 등 주거 환경 개선
- 여성 어민후계자 연령 제한 완화, 즉 대상 연령 범위 확대 필요

□ 여성어업인 전담부서(조직) 및 인력 확보

-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사례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농촌여성정책팀)
 -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담당부서 설치 (예시: 충청남도 농촌복지여성팀)
-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녀문화유산과 설치 벤치마킹 필요
 - 해녀정책팀(6명), 해녀박물관팀(12명)으로 총 19명 ('22년 10월 기준)

□ 수협 등 어업 관련 조직에서의 여성어업인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여성 임원 할당비율 등 조건 완화를 위한 논의 및 제도 정비
 - 여성 대의원, 여성 비상임이사 임명의 전제조건인 여성 수협회원 30% 비중을 20%로 낮추는 개정 필요, 아울러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 필요
-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필요, 이를 위한 활동의 어려움 존재
 - 제도 개선 활동을 펼치는 여성들에 대한 어촌사회의 낙인찍기

□ 직업적 가치 및 남편과 자녀에게 여성어업인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부여

엄마 따라서 아니면 와이프를 따라서 가서 1박2일을 이렇게 즐긴다....(중략)... 바다에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남편들도 와이프 때문에 이런 호사도 누리는구나 진짜 그런 거 한번 꿈꿔보고 싶습니다. (장○○, 군산)

- 지금까지 어업인 대상 교육과 행사는 주로 남성어업인 위주, 여성어업인 힐링센터(가제) 조성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필요
- 여성어업인 전용 휴양시설 조성 및 이용을 통한 여성어업인 가족(남편, 자녀)으로서의 자긍심

3) 여성어업인에 대한 차별 경험

□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여성어업인 무시

수산물에 무슨 일을 보러 갔을 때, 일단은 여자들이 가면 어업을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일단 가면 무시하는 분위기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고 조금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권○○, 서천)

- 아직까지도 직업인으로서 여성어업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 여성어업인의 노동가치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행정 현장에서의 차별

해양수산부 지청에서 잘 받아주지 않고 ‘남자분 오세요’, ‘바깥분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왜 아주머니가 경영체 대표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지금까지 어업을 같이 했지만 제 통장으로 돈 들어와 봤자 다 자기(남편)가 쓰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저 생활비로 해서 쓰는 거 외에는 내 것이 따로 없기때문에 괜히 오기가 생겨가지고 해달라고했지요. 몇 번 퇴짜 맞고 다시 또 가고 또 가고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만에 신청되었고, 서류를 이만큼 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서 갖다 줬더니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어업경영체 대표로 해주었어요. (장○○, 군산)

- 어촌의 유지를 위한 중요 주체로서 인정하고 여성들의 역할과 기여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특성화 등 여성어업인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함

4) 어촌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애로점

□ 과중한 노동 부담

우린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바다 나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지에 오면 또 가사를 해야죠. 너무 많아요. 진짜로 일이....(장○○, 군산)

- 승선 조업, 수산물전처리, 판매 및 가공, 인력관리, 맨손어업, 가사 및 돌봄노동
동시 수행
- 부족한 일손을 대신할 선별기 등 장비 사용 수요 높지만 임대 사용의 어려움
- 일정 정도 규모와 크기의 배에서만 가능, 작은 배에서 사용의 어려움

■ 건강, 일생활균형 관련 삶의 질 저하 및 노동환경 개선의 어려움은 지속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주사 맞고 다니고있어요. 계속 일을 하니까 어깨니 뭐니 다 이렇게 관절이 다 아프고 밤에 잘 때도 끄끄 앓지요. 자식들에게는 이 일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김○○1, 대천서부)

- 특화건강검진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 지원 필요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절대 부족, 자녀 돌봄 및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 건강문제 심각, 근골격계 질환 만성화
 - 쉽과 자기돌봄이 없는 삶에 대한 점검과 고민이 필요

■ 외국인 선원 구인난에 따르는 대체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가중

한국 사람들 배에서 일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법은 강화돼서 톤수가 몇 톤 이상이면 한국인 몇 명, 외국인 몇 명 승선시켜라 이 법이 강화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계속 근무를 하느냐? 아닙니다. 자꾸 이탈을 합니다. (중략)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저희에게 부리는 양탈이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해요. 아침마다 외국인선원들이 사모님, 저 배 안타요? 우리 보너스 안 줘요? 월급 올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중략) 선원이 없으면 결국 저희 여성어업인들이 선상에서 직접 올라가서 일을 하고 선원등록도 되지 않은 저희들이 직접 바다를 따라다녀야 하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여성 어업인들의 위상도 높이고 권익을 지키고 이런 게 좋은 건 아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진짜 삶에서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김○○1, 대천서부)

- 인력수급 부담, 무단이탈 등 외국인 선원 사후관리에 따르는 여성어업인 노동 부담 가중
 - 선원 미등록 상태의 아내 승선 및 조업 참여 우려
- 외국인 선원 채용, 이탈 방지 등 어선원 관리 역할 추가 등에 따르는 고충 지원 방안 모색 필요

참고 : 외국인 선원 도입 제도

외국인선원제 (E-10비자) : *선원법 적용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위탁 운영
- 20톤 이상 어선
 - ① 내항선원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자(E-10-1)

해운 법 제3조 제1호 (내항 정기여객), 제2호 (내항 부정기 여객) 및 제23조 제1호(내항 화물 운송)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 톤수 5톤 이상의 내항 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한국해운조합 운영업무 담당
 - ② 20톤 이상의 어선원으로 국내 취업 가능한 자(E-10-2)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정치망어업), 제41조 제1항(동력 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7조 제1항(어획물 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 수협중앙회 운영업무 담당
 - ③ 2천 톤 이상의 순항 여객선원으로 국내 취업하고자 하는 자(E-10-3)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 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 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

고용허가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 적용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운영
- 20톤 미만 어선
- 정치망어업, 어장막 어업에 한하며 세부적으로는 연안, 근해, 양식, 염전 채취 등 해당

3 제주권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가.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8.10.(수) 13:30~16:00 / 제주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
- 참석자 : 여특위, 한여련, 해수부 등 39명 ※ 세부 참석자 명단 부록1 참고
- 좌장 및 주제 발표
 - 좌장 : 김영란 여특위 위원장
 - 발표 : 해수부 소득복지과 이종호 과장

나. 참석자(여성어업인) 현황 분석

□ 참석인원 : 29명

□ 연령·경력·거주기간

- 연령 : 평균 63.9세(최대 72세, 최소 50세)
- 어업 경력 : 33.7년(최대 60년, 최소 6년)
- 해당 지역 거주기간 : 42.3년(최대 71년, 최소 4년)

□ 종사업종 분포

- 여타지역과 달리 참석자 모두 단일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어선어업 24.1%, 양식어업 20.7%, 맨손어업 10.3%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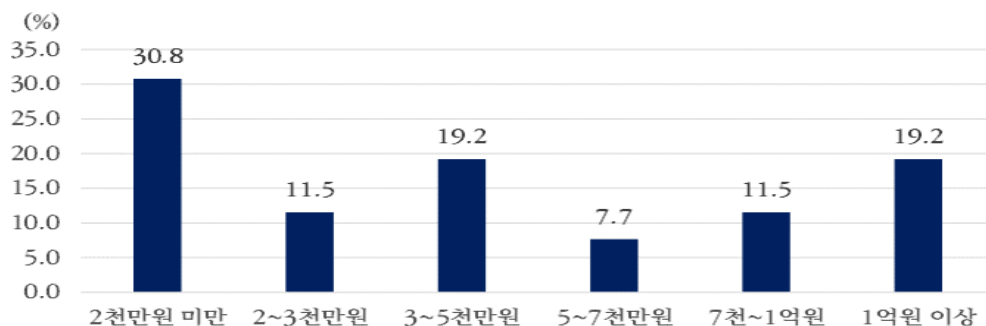
〈표 3〉 제주지역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종사업종 분포 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어선어업	양식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비 중	100.0	24.1	20.7	10.3	41.4	3.4

□ 소득 분포

-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연간 소득은 평균 5,038만원으로 추정됨
- 소득 구간별로는 2천만원 미만인 전체의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다음으로는 연소득 1억원 이상과 3~5천만원이 각각 19.2%씩이었으며, 2~3천만원과 7천~1억원이 11.5%씩의 비중을 보였음
- 연소득 2~3천만원 경우 전체의 7.7%를 차지했음



[그림 3] 제주지역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연간 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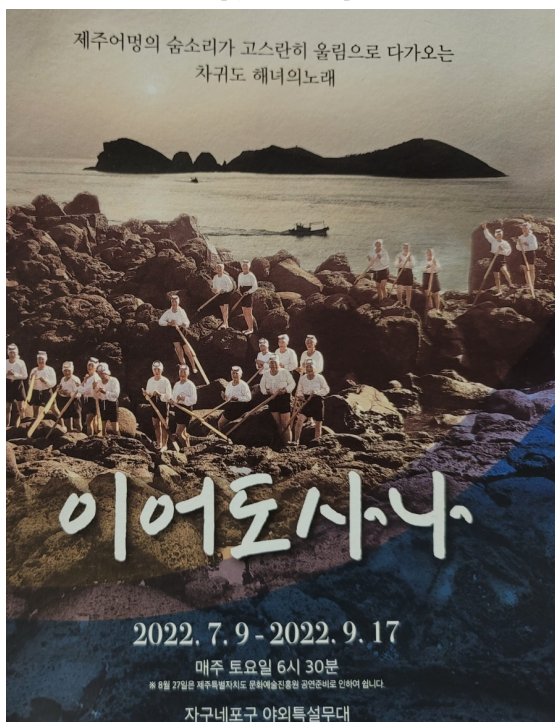
다. 주요 내용

1) 여성어업인으로서의 가치

□ 해녀 활동을 통한 수협 이사 선출, 공연 통해 해녀문화 전파

- 해녀 경력 50년, 수협 이사 선출 및 해녀 공연 실시
- 해녀로서 활동한 지 50년이 되었으며, 한림수협의 이사로 선출되었음
- 제주의 고산 차귀도 마을에서는 주 1회 토요일마다 해녀 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의 해녀분들도 참여하는 등 호응이 좋음

[공연포스터]



[공연장면]



자료 : 소랑라파의 제주도 라이프(<https://blog.naver.com/annie0733>)

열일곱 살부터 해녀질을 해서 육지도 다니고 이제 일본도 다니고 돈 벌려고 해녀질 다니면서... 지금은 한림수협의 이사입니다. (중략) 우리 마을은 고산 차귀도마을인데 이제 우리 해녀들을 구성해서 토요일마다 공연하고 있어요. (박○○, 제주)

□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로 자긍심 고취

- 과거 해녀라고 천대받으면서 활동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제주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음

- 해녀문화를 계승·발전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자긍심이 고취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다양한 지원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지원 4대 분야

- **복지 분야** : 해녀 진료비 지원, 어업인 안전 보험 가입비 지원, 유색해녀복 지원,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 어촌계 신규 가입비 지원,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등 8개 사업
- **소득 분야** : 수산종자매입방류, 마을어장 경영평가우수어촌계 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패조류투석, 패조류용 어초투하, 해조류 PP마대 지원, 소라가격 안정 지원, 마을어장 복원, 해녀문화 홍보마켓운영 지원, 소라판촉 및 소비촉진 등 10개 사업
- **작업환경 개선 분야** : 해녀탈의장운영 지원, 해녀공동작업장 보수, 해녀탈의장 보수, 어촌계 작업 도구 지원, 어장진입로 정비, 안전 조업 장비 지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 등 7개 사업
- **해녀어업 문화전승 분야** : 해녀학교 운영비 지원, 제주해녀축제 지원, 해녀공연 운영지원, 제주해녀 일대기 기록, 해녀박물관 운영, 해녀어업 문화복원 정비, 제주해녀굿 지원,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 등 8개 사업

유네스코 등재됐잖아요. 우리는 그 유네스코 등재되고 요새는 자부심을 갖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주 해녀들! 감사합니다. (장○○, 제주)

□ 해녀활동을 통한 다양한 성취

- 물질을 통해 자식들의 양육 및 교육하였으며, 해녀 경력 50년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인정받아 산업포장 수여 받음
- 각종 행사에 초청받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해녀'로서의 자긍심이 높음

물질 해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각종행사에도 많이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포상까지 받았습니다. (홍○○, 제주)

2)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제안

□ 귀어자의 어촌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여건 마련

- 인력난을 겪고 있는 어촌의 형편을 감안하면 귀어 활성화를 통해 외부 인력의 유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귀어희망자의 조기 정착 등을 유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체험어장 경험 : 귀어·귀농자 20여 명 대상 해조류 및 전복요리 전수 후 만족도 상승

- 귀어자 특히 해녀 수료자의 경우 실제 물질을 위한 어장이 없어 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체험어장 마련이 필요함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촌계에 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체험어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홍○○, 제주)

□ 원활한 어촌계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및 기존 해녀에 대한 지원

- 귀어인의 경우 어촌계 가입이 용이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입 시 요구받는 가입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어촌계 가입금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가입금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 아울러 기존 해녀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신규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이 활성화 될 것임
 - 기존 해녀들에게 신규 해녀의 가입은 기존 자신들의 몫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해녀 가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

개네들은 이제 30대 20대고, 우리는 70대, 80대 잼아요. 그러면 개네들이 1년만 되면 우리 따라옵니다. 그렇게 내 밥그릇 갈라 먹으면 누가 환영합니까? 양성화 시키려면 도에서 그 사람만큼을 어촌계에 지원을 해 주십사. (장○○, 제주)

3) 여성어업인에 대한 차별 경험

□ 차별은 없음

- 어선어업의 경우 부부조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결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가정 내에서도 자신을 의견을 충분히 관철하고 있음

지금은 우리가 큰소리칩니다. 남녀평등! 차별 그거 없어요. 우리 해녀들은 완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홍○○, 제주)

“제가 알기로는 해녀 사모님들도 큰 소리 많이 치시고, 배를 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혼자 사업을 못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해야 배 사업을 할 수 있지. 여자 혼자도 못하고, 남자 혼자도 못하는 게 이 배 사업인 것 같아요”(김○○, 제주)

4) 어촌사회에서의 애로점

□ 해루질 및 스킨스쿠버에 의한 어업 질서 훼손

- 해루질 및 스킨스쿠버에 의한 마을어장 훼손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국민들의 이기심과 수산제도 등에 대한 무지로 불법이라는 인식 없음
 - 마을어장 내 인위로 조성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포획·채취, 어장 환경 훼손 등 부작용 다수 발생
-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원조성 해역으로의 해루질 및 스킨스쿠버 금지 제도 마련 요구
 - 별도의 레저활동 구역 지정, 일몰 후 일출 전 레저활동 금지 법제화 검토

진짜 해루질이 너무 난발 되어 우리 해녀들 바다 물건, 어패류... 진짜 전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김○○, 제주)

우리 해녀들이 공들여 가지고 전복도 키우고 소라도 키우고 문어도 키우고. 그거 키우는 곳에는 아무도 못들어갑니다. 못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들어가요. (홍○○, 제주)

도적놈들이 와가지고. 밤에 다이버들이 와가지고. 소라하고 다 갖고 가버립니다. (○○○, 제주)

□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

- 급격한 기후변화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오염으로 연안에서의 어업활동이 과거에 비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 필요
- 연안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풍부한 어족자원 유지, 지속적 종묘 방류 사업 수행 필요

전에는 아주 청정 바다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바다가 말도 못하게 오염이 됐습니다. (중략) 그리고 또 기후관계로 바다에 물건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문어나 소라나 해삼이라도 좀 많이 방류를 시켜줬으면....(부○○, 제주)

□ 선원 인력난 심각

- 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불안정한 수급으로 어업경영에 심각한 위협
- 고용허가제에 의해 공급받는 외국인 노동자(E9)의 경우 타지역 및 타업종으로의 이탈이 심각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에 계절노동자 등을 어업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정책적 배려, 외국인 노동자 공급제도의 일원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는 선원 때문에 한번도 고충을 안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배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김○○, 제주)

□ 해양쓰레기와 더딘 수거

- 해양쓰레기(어망, 로프 등)가 스크류에 감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업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어업인들이 조업 중 발견한 해양쓰레기를 인양하여 어항으로 가지고 오지만 이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2차적인 오염이 발생하고, 어업인들에게는 해양쓰레기 인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유류비 등)이 발생함
 -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가 필요하며, 어업인들에게 해양쓰레기 인양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인 동기부여 가능

어선어업을 하는데 한 25년을 다녔어요. (중략) 요즘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문제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스크류에 어망이 걸리고 쓰레기 걸리고 해서 짜증이 납니다. (이○○, 제주)

□ 열악한 단체 활동 환경

- 여성어업인 단체의 사무실이 없어 단체활동이 제약받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해녀협회의 사무실과 같이 여성어업인 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지원해 주기 희망함

우리가 사무실이 없다보니 각 분회에 우리 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박○○, 제주)

□ 안전사고 위험

- 해녀들의 조업 후 입항 시 작업물을 양륙하는 과정에서 인력에 의존함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큼
- 어항 내 크레인을 설치하여 작업물을 양륙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 저감 및 수산물의 신속한 유통 가능

소라 같은 거 3~40kg만 해도 우리가 휘어와서 지어 올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다리가 후들 거립니다. (박○○, 제주)

□ 선원공제보험 부담 수급

- 선원공제보험으로 인해 어선사고 시 어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병원과 사고선원 간 보험금의 부담 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 필요

□ 운송 선박 노후화

- 해녀 작업 시 작업해역까지 운송하는 선박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 증가
- 선박 건조 또는 안전을 위한 선박 개조 등 지원 필요

우리는 배를 타고 섬에 가서 작업을 많이 하니까 배도 이제 우리 도네는 이제 계장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도 너무 헐었고 그것도 좀 도와줬으면... (박○○, 제주)

□ 해녀 고령화에 따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해녀를 지원하기 위해 70세 이상 해녀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80세 이상 해녀의 은퇴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월 30만원을 3년간 지급하고 있음
 - 80세 이상 해녀들에게 은퇴수당의 개념으로 지급
- 해녀 은퇴수당을 받기 위해 고령 및 노약상태에도 지속적으로 물질을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으므로, 은퇴 연령을 75세로 하향조정할 필요 있음

저는 이분이 그만 이제 은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은퇴를 안하셔요. 80세가 되어도. 왜냐하면 행정에서 한달에 80세가 되면 20만원씩 나오는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은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김○○, 제주)

- 해녀 등 어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연간 어업활동일수 60일 미만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일부 어업인들이 어업인 자격 완화 검토를 요구함

→ 어업인의 자격은「수산업법」,「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특정 어업 또는 개인을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조합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주는 그 직불금 제도 같은 것도 잘 못받고 이제 말썽이 좀 있습니다. (홍○○, 제주)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방식 불합리

- 현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20%는 해당 어업인이 소속된 어촌계에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개인이 수령함
 - ※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액 : 80만원/1인
 - 어촌계의 직불금 관리 및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인에게 100% 지급하도록 직불금 운용방식 개선을 요구함
 - 한편 동일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이지만 거주 장소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발생
 - 특히 길을 경계로 조건불리지역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우리가 받을수 있는 돈을 20% 못받고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 제주)

□ 선박검사 강화에 따른 부담

-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검사지침 강화로 검사 빈도 증가 및 비용 과다 발생
 - 어선 검사비용을 어업인에게 모두 전가함으로써 직접적인 검사비용뿐만 아니라 조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 발생
 - 검사기간도 1개월 가량 소요
- 특히 기관 수리내역만으로 검사관 재량에 의해 기관 개방검사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사전자료 요구 및 검사원 입회 없이 검사를 면제할 수 없어 불필요하게 기관을 개방하게 되므로 중복 비용 발생

어선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 선체상가, 선체두께측정, 기관개방 등 선박 전반에 대한 검사, 5년
-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검사, 2~3년
- 임시검사 : 선체, 기관, 조타장치 등 개조·수리 시 실시하는 검사, 수시
- 기관개방 검사 : 10톤 미만(10년 이내) 및 10톤 이상(8년 이내)

- 덧붙여 소화기와 같은 소모품의 경우 사용기한 만료 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신품과 교환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어선업하는 일을 20년 30년 후퇴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안했던 정책을 쓰고 있고...(중략) 우리나라 국민이 돈을 내면서까지 검사기준을 맞추는...(중략)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배를 지어서 5천만원이나 드는 돈을, 검사를 하다가... 검사기간을 줄여주니까 돈을 돈을 1천만원씩 내고.... (김○○, 제주)

배 검사를 맡기려면 7~8천만원 들어요. 낱파도 20일 가까이 잡아먹고. 올해는 낱파를 조금 축소시켰어요. 그것도 천만원으로. (천○○, 제주)

□ 어선증축의 필요와 제약

- 기존 어선은 조업활동에 초점을 두어 건조되었기 때문에 선원을 위한 공간(하우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증축을 통해 어선원 공간을 마련하였음
- 어선증축에 대해 과거 20~30년 동안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정부에서 이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규제 목적이 어창의 규모를 제한하는데 있으므로 어선원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증축된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선원복지 및 안전한 조업을 도모해야 함

사람이 하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함수를 다 잘라가지고 없애라는 거죠. 톤수에 넣으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하우스가 있어도 사람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데, 이 하우스가 없으면... 처음부터 규제를 했어야지. 20년 30년 전에 있던 것을 지금 와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김○○, 제주)

4 부울경권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가.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2.8.26.(금) 13:30~16:00 / 부산시수협 대회의실
- 참석자 : 여특위, 한여련, 해수부, 경남, 부산 등 47명 ※ 세부 참석자 명단 부록1 참고
- 좌장 및 주제 발표
 - 좌장 : 류정곤 수산특위 위원장
 - 발표 : 해수부 소득복지과 이종호 과장

나. 참석자 현황

- 참석인원 : 27명
- 연령·경력·거주기간
 - 연령 : 평균 64.8세(최대 76세, 최소 40세)
 - 어업 경력 : 32.1년(최대 54년, 최소 1년)
 - 해당 지역 거주기간 : 44.7년(최대 70년, 최소 30년)
- 종사업종 분포
 - 하나의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전체의 92.6%, 두 개 이상의 어업에 종사 하는 경우는 7.4%로 나타남
 - 단수 어업의 경우 양식어업의 비중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어선어업 29.6%, 나잠어업 18.5, 맨손어업 3.7% 등의 순이었음
 - 복수어업은 어선어업과 나잠어업,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그리고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각각 3.7%씩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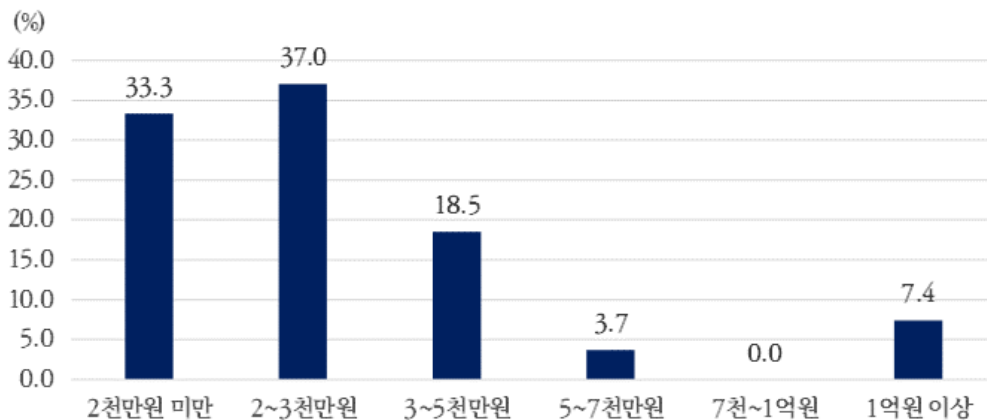
〈표 4〉 부울경지역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종사업종 분포 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단수 어업						복수어업		
		소계	어선 어업	양식 어업	맨손 어업	나잠 어업	기타	소계	어선+ 나잠	어선+ 양식+ 맨손
비중	100.0	92.6	29.6	33.3	3.7	18.5	7.4	7.4	3.7	3.7

□ 소득 분포

-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연간 소득은 여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 평균 3,296만원으로 추정됨
- 소득 구간별로는 2~3천만원이 전체의 37%, 2천만원 미만인 33.3%로 연소득이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참석자가 70.3%에 달했음
- 연소득 1억원 이상인 비중은 7.4%였음



[그림 4] 부울경지역 여성어업인 현장간담회 참석자의 연간 소득 분포

다. 주요 내용

1) 여성어업인으로서의 가치

□ 여성어업인의 역할 다양

- 예전에 비해 여성이 어선이나 바다 일하는 사례 매우 증가하였음
- 여성어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주변의 인식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부울경지역 역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2)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제안

■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계획」 실천이 중요

-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은 여성농업인에 비해 정책적 지원, 관심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음
- 이번 정부의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계획」이 단순히 계획수립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되는 계획이어야 함

사업 설명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많은 공감을 했고, 그것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신경 쓰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꼭.... (이○○, 부산)

■ 청년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요구

- 어업후계자로서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시 복잡한 절차와 어장 감정 과정으로 인해 충분한 자금 대출이 어려움
- 청년어업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가칭: 청년 패스트트랙) 개발 등 필요

어민후계자로 선정되고 정책자금을 쓰려고 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중략) 수협에 신청해 쓰려고 하면 감정가격으로 저한테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하신 것이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중략) 청년들이 어촌에 와서 정착을 하려면 조금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 부울경)

굴양식 자금대출 사례

- 굴양식은 10헥타르 정도 있어야 1년(11월 ~ 익년도 5월경) 동안 작업할 물량이 나옴
- 어민 후계자나 귀어귀촌 자금을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최근 어장 10헥타르에 약 3억원 이상임
- 어장주는 실물가 3억원을 요구하는 데 수협에 신청서를 쓰려고 하면, 수협은 감정가격으로 대출을 해 줌(실물가와 감정가격의 차이 발생)
- 어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현금을 바로 지원받을 수 없음. (만약 절차를 무사히 마쳐서) 자금지원 대출도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실물가격에 못 미침
- 정책이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해도 어선, 어장, 기타 다른 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필요할 때 쓰기가 어려움
- (만약 구매시) 내가 계약금을 먼저 어장주에게 줘야 함. 그래야 계약이 성립. 그런데 내가 만약 계약금 3천만을 먼저 어장주에게 줬으면, 그리고 수협이 어장주에게 3억원을 주면, 3천만원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그 계약금 중에 몇 %를 제하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이것저것 자금지원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 청년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활성화 방안 강구

- 어촌의 인력난은 심각하지만 어촌으로의 인력유입은 활성화되지 않아 소위 ‘어촌 소멸’위기에 직면
- 청년어업인들의 모임인 ‘경남청년어업인연합회’발족
- 청년어업인이 있으나 어촌계 가입이 쉽지 않아 청년의 어촌 유입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청년어업인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살던 고향도 20년이 지나면 텅 빈 유령도시가 되어버릴 것 같아요. 어촌계 가입 부분에서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박○○, 거제)



자료: <https://blog.naver.com/gnfeel/222852421503>, 검색일: 2022.9.21

[그림 5] 전국 최초 ‘경남 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2022.08.19.)

□ 여성어업인 맞춤형 어업기자재 지원

- 여성어업인은 남성어업인에 비해 신체적 크기나 힘이 차이가 있고, 활동 어종도 다른 경향이 있으므로 여성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어업기자재를 필요로 함
- 구멍복, 닻 등의 개선이 요구됨

지금 있는 구멍조끼는 진짜 덥고 갑바위에 입으려고 해도 못 입어요, 갑바위에 입으면 그물이 막 걸려서 그물이 찢어져요. (중략) 저는 작업하면서 닻이 너무 무겁거든요. (○○○,부울경)

□ 제주해녀와 육지해녀 간 정책지원 격차 해소 요구

-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인 ‘제주해녀’와 육지의 해녀 간 지원 차이가 매우 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의료비, 잠수복 지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제주해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타의 시도에서도 해녀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의료비가 걱정이예요. 제주도처럼 아무 병원에 가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략) 잠수복 지원도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해녀들에게 다 해주면 좋겠는데, 1/3만 주니까 고충이 있어요 (중략) 제주해녀는 유네스코 등재해서 혜택이 많은데... (양○○, 부울경)

3) 어업현장에서의 성차별

- 어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여성어업인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음

4) 어촌사회에서의 애로점

- 과도하게 많은 어구 설치로 조업 경쟁 심화 및 수산자원 악영향

- 일부 어업인이 어구 수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여타 어선의 조업에 영향을 주고, 유령조업(Ghost Fishing)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법으로 허용된 어구 수를 초과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 및 제재 방안 강구 필요

제가 다른 어업하시는 분들 보니 통발을 너무 많이 바다에 깔아 놓으니까 그러면서 작은 고기가 없어지고 안그렇습니까? (김○○, 부울경)

- 비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어장에서 해양쓰레기 발견 후 수거활동을 병행함
-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어항 또는 수협에 분리수거함 설치 건의

우리가 가서 보면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중략) 어디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면... (김○○, 부울경)

오늘 전어 그물을 네 번 치고 왔는데, 그 중에 두번 그물에 통발이 줄줄이 올라오는 거예요 (박○○, 부울경)

□ 해루질 성행

- 최근 해루질이 성행하여 어장 내 조성한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줄뿐더러, 나잡 어업인의 소득 감소를 조장하고 있음
 - 해루질 성행으로 소득 1/10로 감소 주장
- 어촌지역 고령화로 주민 차원의 해루질 대응은 한계가 있음

요즘 해루질을 풀어 놓으니까 마을에 지장이 엄청납니다. (중략) 예전에는 A급 해녀가 100만원씩 벌어나왔습니다. 지금은 10만원 벌기도 힘들어요 (중략) 밤 열두시에서 다섯시까지 훔쳐가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 나이가 필십대 이렇게 젊은 층이 없으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 부울경)

그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잡아요. 그 사람들은 전복도 4cm되는 것도 다 잡아와요. (김○○, 부울경)

신고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돌려보내요. 우리 어민들은 진짜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장○○, 부울경)

□ 바다 매립에 따른 조업어장 상실

- 가덕도 인근 부경신항의 경우 그간 매립과 신항건설로 인해 상당부분의 조업 어장을 상실
- 바다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바다 매립을 확대하지 않기를 희망함

바다의 소중함을 모르고 매립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해루질 할 장소도 없어요. (중략) 바다를 우리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매립해서 없어진 바다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김○○, 부울경)

□ 수산물 판로확보의 어려움 상존

- 코로나19 여파로 기존 로컬푸드 등의 판로가 막혀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터넷 판매 등이 활성화되지 못함

우리는 로컬푸드나 이런데 판로는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장 이런 것을 안해요. 인터넷판매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 부울경)

□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 굴 양식의 경우 박신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며, 특히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음
-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방지 등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지자체에서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유출 관련해서,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유출될 경우 책임 소지가 있으니까 큰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곳 위주로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2~3년 해서 괜찮아진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신청을 해봐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여 올해는 계절 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박○○, 거제)

Lined area for writing notes, consisting of 25 horizontal lines.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5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